

7일 Market Index			
↑ 코스피	2722.67	↑ 코스닥	866.18
	(+33.17)		(+15.43)
↓ 금리 (연율)	3.308	↓ 환율 (원/달러)	1365.30
	(-0.037)		(-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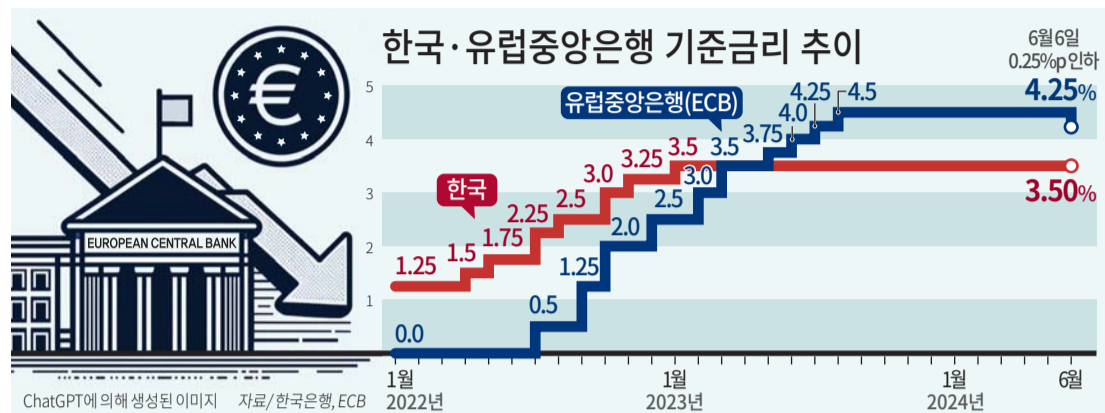
# metro® 경제

의협, 총파업 가결  
"18일 집단휴진"  
02



## 유럽, 금리인하 스타트... 韓 “물가 불안에 빨라야 10월”

ECB, 기준금리 0.25%p ↓  
캐나다도 4.75%로 내려  
글로벌 금리인하 기대감  
韓, 물가흐름 더 지켜봐야  
농산물·가스 변동성 주목



2022년 10월 10.6%까지 오르다가 2023년 6월 5.5%, 올해 5월 2.6%를 나타냈다.

당시 ECB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2022년 6월 0%에서 2023년 9월 4.5%까지 끌어올린 뒤 9개월 간 금리를 동결했다. 크리스티니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p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며 “미래 전망(물가 둔화)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에 통화정책 제한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도 2022년 6월 8.1%까지 오른 뒤 2024년 4월 2.7%로 낮아졌다.

캐나다중앙은행도(BOC)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2022년 1월 0.25%에서 2023년 7월 5%까지 4.75%p 인상한 뒤 11개월간 해당 금리를 유지했

다. 티프 맥클럼 BOC 총재는 “최근 수개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향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란 확신이 강화됐다”며 “우리의 확신이 지속된다면 금리의 추가 인하도 기대할 만 하다”고 말했다.

### ◆ 한국, 물가변동성 커... 10월 인하 예상

한은은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이다. 물가는 유럽과 캐나다 만큼 낮아졌지만,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022년 7월 6.3%까지 오른 뒤 올해 5월 2.7%를 기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보면 국제유가 외에도 농산물, 도시가스의 물가상승 영향이 두드러진 편이다. 품목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4월 기준 농산물가격이 1년전과 비교

해 21.1%, 도시가스가격이 6.4% 뛰었다. 유럽의 농축수산물도 2.1%, 천연가스가 -6.3%를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수준이다.

현재 유가와 달리 천연가스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용량이 적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유독 물가흐름의 변동폭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영향을 받고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 한은 부총재보는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를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내외 경기흐름,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치에 수렴해 가는 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금리인하 시기를 10월 이후로 전망한다.

(3면에 계속)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메트로경제 ‘2024 푸드노베이션 포럼’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푸드테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8%가 인간이 키우는 가축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25% 가량은 식량 생산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 각종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활동이 돌고돌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이러니가 된 것입니다.

〈메트로경제〉는 식품 관련 유관산업에 변혁을 주기 위해 ‘2024 푸드노베이션포럼’의 주제를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푸드테크’로 정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행사개요

- 행사명 : 2024 푸드노베이션 포럼
- 주제 :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푸드테크
-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14:00~18:00 |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최 :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록 :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사전등록시 무료, 현장등록 110,000원.
- 문의 : 2024 푸드노베이션 포럼 사무국(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2면에 계속)



## 개발부터 생산까지... 현대차, 수소사회 성큼

모비스 수소사업 인수 완료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일원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기대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수소 솔루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의 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를 완료하면서 수소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는 이번 인수를 통해 연구개발(R&D)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일원화해 수소 사회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9일 현대모비스로부터 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지

난 2월 R&D와 생산으로 이원화돼 있던 기존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통합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인수 절차 마무리로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사업 관련 설비, 자산, R&D, 생산 품질 인력 등을 한곳으로 모아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로 현대차는 R&D 본부 수소연료전지개발센터 내

에 수소연료전지공정품질실을 신설하고, 제조 기술과 양산 품질을 담당하는 조직을 정비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기술 경쟁력과 생산 품질을 높이고, 수소연료전지 판매를 확대해 수소 생태계 실현을 가속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일원화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다. 현대차는 2025년 넥쏘 후속 모델을 출시하고 발전, 트램, 항만, 선박, 미래 항공모빌리티(AAM) 등 비차량 분야에서도 사업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는 수소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 연결로 수소 사회 전환

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수소 에너지는 청정하고 무한하며 세상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환경 문제와 에너지 수급, 자원 고갈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소를 주목하며 1998년 수소 관련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2000년 캘리포니아 연료전지 시범사업에 참여해 신타페 수소전기차를 선보이면서 연료전지 분야에서 처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어 2004년에는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스택의 독자 개발에 성공하는 등 꾸준한 투자와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여야, ‘감세 경쟁’ 본격화... 중부세 이어 상속세 완화 검토 /사진 뉴스스
- ▲ 민주당, 대선 출마하는 대표 ‘사퇴시한’ 예외... 당헌 개정 추진

- ▲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출방식·지도체계 변경 방안 논의
- ▲ 한미, 10~12일 워싱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3차 협상



- ▲ 나경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다음은 이재명” /사진 뉴스스
- ▲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국회 예산 협조부터 ‘산 넘어 산’



# 대학병원·동네병원도 진료 멈춘다... 의협 “18일 집단휴진”

##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투표 인원의 90.6% ‘투쟁찬성’  
교수들도 동참... 총궐기대회 예고  
한덕수 총리 “사회에 깊은 상흔 우려  
복귀 의사,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임헌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단체 지지 전국 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의사들이 오는 18일부터 일제히 진료를 멈춘다. 대학병원은 물론 동네 병·의원까지 모두 휴진에 들어간다. 이번 집단 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네 번째이지만, 대학 교수들이 함께 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총파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역대 최대 규모 집단 휴진 시작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정부 투쟁 방침을 선포했다.

의협은 지난 4일부터 4일 동안 의대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총파업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

유권자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63.3%로 집계됐다. 투표 인원 중 90.6%가 강경한 투쟁에 대해 찬성했다.

또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물음에 5만2015명이 찬성해 73.5%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18일 대규모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든 투표 중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이라면서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 의협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겠다고

적극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헌택 의협 회장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18일 전국 휴진에 들어가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증원 갈등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집단 휴진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집단 휴진은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전

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사태 정상화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예고했다. 전국 의대 40곳 중 20곳의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의 대정부 투쟁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정부 “의료 공백 막기 위해 최선”

정부는 의사들의 총파업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대책 시나리오를 시행,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의사 집단행동의 핵심 쟁점인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전공의)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간 약 4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 센터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세경 기자 seille@metroseoul.co.kr

# 국내 등록외국인 140만명 근접 ‘역대 최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월 말 기준 139만명, 12.5% 상승  
외국인 55.7% 서울 등 수도권 거주  
영남권 19.8%, 충청권 12.3% 등

국내 등록외국인 수가 역대 최다인 140만 명에 근접했다. 등록외국인 수는 올해 들어서만 4만 명 넘게 증가하는 등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들에 더해 단기 체류자·거소신고자까지 포함하는 체류외국인 수 또한 사상 처음으로 260만 명을 넘어섰다.

9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체류일수 90일을 초과하는 등록외국인 수는 올해 4월 말 기준 13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12.5% 늘어난 수치다.

등록외국인 수는 지난 2017년 말(117만 명), 2018년 말(124만 명), 2019년 말(127만 명) 등 증가 추세를 이어 오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말(114만 명)과 2021년 말(109만 명)에 뒤걸음질한 바 있다. 이후 엔데믹이 본격화함에 따라 2022년 말(118만 명), 2023년 말(134만 명) 등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회복세가 매우 가파르다. 2017년 +0.9%, 2018년 +6.4%, 2019년 +2.0%, 2020년 -9.9%, 2021년 -4.5%, 2022년 +8.7%, 2023년 +13.3%로 나타났다.

등록외국인의 55.7%(77만5000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체류(거주)하고 있었다. 이어 영남권 19.8%, 충청권 12.3%,

호남권 8.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보유자가 32.2%로 가장 많았다.

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전문취업(E-9 비자)이 31만4000명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영주(F-5) 18만9000명, 유학(D-2) 15만9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결혼이민(F-6) 14만2000명, 방문동거(F-1) 10만6000명, 방문취업(H-2) 9만6000명, 일반연수(D-4) 7만 명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에 단기체류 및 거소신고자를 포함하는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난 4월 말 도합 26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6%(24만8000명) 증가했다.

체류외국인 수는 10년 전인 2014년 말 180만 명에서 2019년 말 252만 명까



지난달 2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개최된 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의 모습. /뉴스1

지 늘어났다. 2021년에 196만 명으로 내려앉았다가 지난해 말에 250만 선(251만 명)을 회복하고 올해 3월(259만 명)과 4월(260만 명)에 사상 최다를 잇따라 경신했다.

한편, 정부는 연간 5만~6만 명 안팎이던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16만 명 이상으로 크게 늘렸다. 허가 업종도

다양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인난 속에 외국인력의 적극 도입을 호소하는 업종 및 직종이 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생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美 대선 이후 대중국 견제에 대비해야”

무협, 우리 수출기업 악영향 우려  
“선거 동향 모니터링, 방안 모색”

미국 대선 이후 미 연방의회의 대중국 견제 입법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간한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미 의회 개원 이후 단 9개월 동안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376개에 달해 116대(476건), 117대(432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 연방의회가 검토 중인 주요 대중국 견제 수단은 ▲고율의 관세 조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 수출 방지 등이 있다. 항구적 정상무역관계는 미국이 비시장경쟁국에 대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로, 미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중국에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조선·해운,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품목에 대한 301조 조치 강화를 지속 요구해

왔다.

이러한 대중국 강경 견제 기조는 우리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의 제3국 우회수출 차단이나 수출 제한, 중국산 원료나 중간재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는 대통령의 권한뿐만 아니라 정책 의제 설정권자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선거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중국을 겨냥한 의회의 입법이 한국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1면  
‘삼삼’서 계속

### ◆ 프로그램

- 13:30~14:00 참가 접수 및 등록(VIP 티타임)
- 14:00~14:05 VIP 축하
- 14:05~14:10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환영사

### 〈세션1〉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푸드테크

- 14:10~14:50 시나 알바네즈, 코랄로 CEO
- 14:50~15:10 CJ제일제당 윤효정 경영리더
- 15:10~15:30 풀무원 정해정 상무
- 15:30~15:50 한국사회투자 이종익 대표

### 〈세션II〉 토크쇼(주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푸드테크)

- 15:50~17:00 사회 안병익(前 한국푸드테크협의회 공동회장) 식신 대표이사, CJ제일제당 윤효정 경영리더, 풀무원 정해정 상무, 한국사회투자 이종익 대표, 인테이크 R&D본부 총괄 김정훈 이사



통화정책 전환기

# 美 금리인하 지연 전망 확산... 비트코인, 7만달러 붕괴

상승가도를 달렸던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고용지표 발표 직후 차갑게 식으면서 7만달러가 붕괴됐다. 고용시장 열기가 지속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더 늦게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9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9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일 6만7000달러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7일 7만1000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7만1920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는 7만3000달러 선이다.

하지만 지난 8일 새벽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약 2시간 만에 6만8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비트코인 급락 원인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美 비농업 고용 27만명 증가  
주요 IB, 금리인하 전망 조정  
“12일 소비자물가지수 변곡점”

가상자산업계, 긍정적 전망  
“현물 ETF 규모 점점 커져”



/유투이미지

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지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7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19만명 증가)는 물론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폭(23만2000명)도 웃돌았다.

앞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과열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 관련 지표 추이를 주시했다.

미국의 지난 4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폭은 16만5000명에 그쳤고, 이는 1~3월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어 7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미 노동부의 발표로

용시장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노동부의 고용지표 발표 후 주요 투자은행(IB)들의 7월 정책금리 인하 전망을 미루고 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씨티그룹과 JP모건은 오는 7월로 예상했던 연준의 최고 금리인하 시기를 각각 9월과 11월로 늦췄다.

또한 씨티그룹은 연준의 연내 금리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JP모건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하향 조정했다.

앤드루 홀렌호스트 씨티 수석 미국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놀라울 정도의 강한 고용 증가다”라며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좀 더 둔화된 고용지표를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세가 높기 때문에 비트코

인 가격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약 8억8700만달러가 순유입됐다. 이는 18거래일 연속 순유입이며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비트코인 ETF 운용 자산은 지난 5일 200억달러(27조5000억원)를 돌파하면서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리인하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된 것 같다”며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하반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일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금 가격 5주만에 최저... 온스당 2325달러

올 들어 두번째로 큰 하락폭 기록  
中 중앙은행 금 매입 중단도 영향

미국 고용시장이 시장의 예측을 뒤집고 강한 고용 증가를 기록하면서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크게 내렸다. 건조한 고용 지표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중앙은행도 금 매입을 중단하면서 지난 수 개월간 이어진 금 가격 강세가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선물시장에서 금 가격은 전일보다 65.90달러(2.76%) 내린 온스당 232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5월 8일 기록한 온스당 2322.30달러 이후 5주 만의 최저치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이다.

이번 금 가격 하락은 미 고용시장이 시장의 예측을 뒤엎고 견실한 지표를 내놓으면서 연준(Fed)의 금리인하 시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금 가격도 약세를 나타냈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골드바가 전시돼 있다. /뉴스1

기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 가격은 지난달 20일 사상 최고가인 온스당 2438.50달러를 기록한 이후 조정에 돌입해 온스당 2300달러 중반에서 등락을 이어왔다. 지난 6일에는 7일 미 노동부의 5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고용시장 완화 전망에 힘입어 온스당 2390.90달러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7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미국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는 27만2000개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20만개를 크게 웃돌았다. 시간당 임금도 전년 대비 4.1% 상승을 기록해 시장 예측치보다 높았다.

고용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가 기존 예측인 9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이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주요한 인플레이션 헤지(화폐까지 하락기에 화폐를 가치 보전 가능한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 수단으로 꼽히는 금 수요가 하락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시장에서 예측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0.45%다. 직전 전망치인 68.68%에서 하루 만에 18.23%포인트(p) 내렸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선결 조건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

승)과 고용시장의 완화를 내걸었던 만큼 당분간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 자산관리 업체인 페이덴앤라이겔(Payden&Rygel)의 제프리 클리블랜드 이사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연초 금리인하 전망은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증가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해 세워졌지만, 그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며 “지금으로선 금리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중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중단도 금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18개월간 금 가격의 꾸준한 상승에도 금 매입세를 이어왔지만, 지난 5월부터는 금 매입을 중단했다.

글로벌 자산관리 업체인 엑시니티(Exinity)의 한 탄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18개월간 이어진 인민은행의 금 매입 중단으로 몇 차례 이어진 금 가격 경신의 주요 요인이 사라졌다”며 “새로운 중앙은행의 매입 및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 없이는 금 가격이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1면 ‘유럽 금리인하...’서 계속

### “韓, 10·11월 인하 가능성”

물가에 이어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9월(54.38%)로 예상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ECB와 캐나다도 올해 성장률 전망이 1% 안팎이며 물가도 2%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여 금리인하가 가능한 것”이라며 “한국은 올해 성장률이 2% 중반대로 예상돼 서둘러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이 낮은 데다 물가도 아직 목표치(2%)에 부합하지 않아 10월은 돼야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ECB의 선제 인하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인하 시기로 예상된 9월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물가가 안정 기조를 찾긴 했지만 7, 8월 인하가 결정되긴 이르다고 보고 10, 11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삼성, 유럽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갤럭시 AI’ 주효

갤럭시 S·A 시리즈 출하량 증가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첫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기능을 선보인 갤럭시 S24 시리즈와 갤럭시 A 시리즈 등 중저가 스마트폰이 인기를 끈 덕분이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출하량

1210만대를 기록하며 37%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 늘었다.

이 기관은 삼성전자 1분기 성과에 대해 갤럭시 AI를 강조한 대규모 마케팅 투자 등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통해 인터넷 연결 없이도 통화 중 실시간으로 통역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 통역 콜’과 화면 위에 간단한 동작만 하면 이미지 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클 투 서치’ 등을 공개하며 주목받았다.

그 결과 1분기 갤럭시 S 시리즈 유럽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430만대를 기록했다. 이 중 울트라 모델 출하량은 160만대로 전체 스마트폰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분기 갤럭시 S23 울트라가 90만대로 갤럭시 A54, 갤럭시 A53 등에 밀려 6위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성과다.

한편 기기별 출하량 순위를 보면 중저

가 스마트폰 갤럭시 A15가 눈에 띈다. LTE 모델(160만대)이 전체 4위, 5G 모델(120만대)이 7위를 기록했다. 합치면 약 280만대로 기기별 출하량 1위인 애플 아이폰 15 프로 맥스(260만대)보다 많다.

기기별 출하량 2위는 아이폰 15 프로(160만대)였다. 하지만 애플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은 삼성전자, 모토로라, 샤오미 등 경쟁사 성장에 밀려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 시장 점유율도 22%로 전년 대비 5%포인트(p) 줄었다.

샤오미는 중저가 스마트폰 레드미 13C(120만대), 레드미 노트 13(110만

대) 판매 호조로 점유율 3위(16%)를 기록했다. 모토로라와 아너는 각각 6%와 3%로 4, 5위에 올랐다. /김서현 기자 seoh@



갤럭시 S24 울트라

/삼성전자



# ‘北 오물풍선 사태’ 정치권 대응 미흡... “근본적 해결책 시급”

국힘, 오물풍선 피해보상법 발의 정부 “대북전단 막지 않겠다” 입장 야당, 대북정책 기조 변화 필요 지적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빌라 옥상에 떨어진 오물 풍선. /뉴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전국 곳곳에 떨어져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분노와 쓰레기가 섞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명분은 대한민국의 탈북민단체 등이 북측으로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행위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26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낸 후 이틀 뒤(28일)부터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오물풍선은 수도권을 비롯, 경남과 전북까지 날아가 떨어져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선 오물풍선이 주차돼 있던 차량 앞유리에 떨어져 파손되는 일도 있었다.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

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육군은 오물 풍선이 날아왔던 지난 1일, 저녁 참모들과 회의를 하느라 작전 지휘 현장에 있지 않은 제1보병사단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리고 휴일인 9일에도 전군인에게 출근 지시를 내리는 등 대비 태세를 바짝 조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에는 오물이 날아왔지만 긴장이 강화될 경우 풍선 안에 시민 생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가 들

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오물 풍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답보 상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오물 풍선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세적인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실질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말폭탄, 입안보만 반복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다”며 “아무런 해법 없이 북한에 비난만 늘어놓는다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대북 강경 정책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더욱 확산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부의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조치를 지적하면서 “조국혁신당이 권고한다.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자”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북한의 ‘오물 풍선’을 막을 실질적인 방법도 찾지 않는다. 대북 확성기로는 풍선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측이 주장하는 오물풍선 살포 명분인 대북전단도, 이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문재인 정부 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현재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서라면 경찰이 전단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부는 별다른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일 때는 현재가 위급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대북 확성기 방송... 국민안전·국가안보에 만전”

대통령실 “사회혼란 용납 못 해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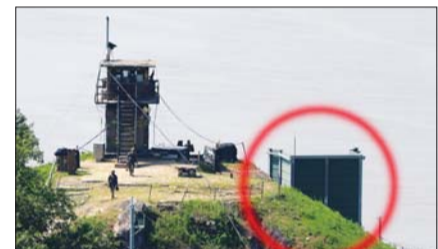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23일 0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중단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NSC 회의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 간 긴장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북한에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착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위력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23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 및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중단됐다. 이후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해 5월1일부터 남북 양측의 확성기 철거가 진행된 이후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그리고 같은해 9월 남북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접경지 인근 군 훈련 등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오후 11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9일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로 식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에 위협되는 물질은 없었다는 게 합참 측 설명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달 28~29일, 이달 1~2일에 이어 셋째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까지 세 차례 살포를 통해 오물 풍선 총 1300여개가 살포된 것으로 식별됐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두 차례 오물 풍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국 측 초소 오른쪽으로 대북 확성기 관련 군사 시설물이 보이고 있다. /뉴스

선을 살포하자 지난 2일 NSC 상임위원회의와 3일 실무조정회의,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북 확성기 방송 모두 가능해진 상황이다. /서예진 기자 syj@

>> 1면 ‘현대차, 수소 사회 성큼’서 계속

## EU DSA법 시행...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링크드인 타겟 마케팅 중지 구글 위치 데이터 정책 변경 아시아권, 틱톡 등 2곳 적용

EU의 DSA법 시행 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법안에 맞춰 플랫폼을 통한 이용자 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알고리즘 편향 등을 막기 위해 EU가 시행 중인 법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많은 사례에서 EU의 기준이 국제적 기준으로 변화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9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MS의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드인(Linkedin)

이 유럽에서 자사 플랫폼을 통한 타겟 마케팅(Target Marketing)을 중지했다.

타겟 마케팅은 사용자 데이터를 토대로 특정 그룹이나 개별 사용자의 관심사와 행동 패턴에 맞춘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직접 공개한 성별이나 직장정보 등부터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수집되는 위치정보, 검색 기록 등까지 모든 정보가 활용된다.

패트릭 코리건(Patrick Corrigan) 링크드인 법률·디지털보안 담당 부사장은 “광고주가 특정 범주의 사용자를 타겟팅하기 위해 우리 플랫폼을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는 관련 기능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발

표했다.

현재 DSA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총 19개로 17개의 플랫폼과 2개의 검색엔진(빙·구글)이다. 아시아권 기업으로는 알리바바 익스프레스와 틱톡 두 곳으로 국내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준은 유럽에서 서비스를 전개 중이면서 동시에 유럽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거나, EU는 DSA법에 의거해 만약 조사 후 시정 조치가 미흡하거나 명백한 DSA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선제적으로 EU 외 국가에 대해서도 EU 기준 적용에 나섰다. 구글은 12월부터 사용자의 시간대별 위

지 정보를 자사 클라우드가 아닌 사용자 기기 내에 저장한다. 지난 7일(현지 시각) 사용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클라우드 내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삭제할 예정이므로 사용자들은 12월 1일까지 자신의 위치데이터를 모바일 장치에 저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EU의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글로벌 스탠다드 또한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 A씨는 “국내에 아니지만 이미 해외에선 수많은 웹 사이트들이 사용자에게 웹사이트의 쿠키(Cookie)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묻고 있는데, 이 또한 EU발 변화다”라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내수 서비스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소 EU 기준에 대한 관심이 적지만, 향후 글로벌 도약 등을 고려한다면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

## “생태계 리더십 확보 그룹사 협업 강화”

2013년에는 투싼ix 수소전기차를 양산하며 세계 최초 수소전기차 양산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017년 도심형 수소전기버스에 이어 2023년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도 출시했다. 올해 초 열린 미국 ‘CES 2024’에서 연료전지 브랜드 ‘HTWO’를 그룹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로 확장하며 수소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사람감을 가지고 수소 사업에 임하고 있다”며 “수소 생태계 리더십 확보를 위한 그룹사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자원순환형 수소생산, 기술개발, 상용화 확대를 지속 추진해 수소사업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T 개발자와 F 디자이너,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



# 지성인들의 집단지성

KT 판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AICT 유망 사업 육성 핵심 거점의 인프라와 자원으로  
입주 벤처·스타트업 대상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과 협력 지원으로 성장 기회 제공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 원 구성 이견 ‘여전’... 野,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강행하나

## ‘야권 주도 개원’ 22대 국회

법사·운영·과방위원장 선출 갈등  
與 “단독처리 시 일정 전면 거부”  
野 “與, 관례 핑계로 국회법 무시”  
협상 결렬되면 野 모두 차지 가능성



제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한 데 이어 여야가 원구성 법정 시한이 넘도록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 운영위원회 등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에서 바라 본 국회 모습. /뉴시스

22대 국회가 야권 주도로 개원한 가운데, 여야는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전히 다투고 있다. 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기반으로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여전히 원 구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쟁점은 국회 법사·운영·과방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다.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법사·운영·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맡았으니, 법안 통과와 ‘게이트키퍼’인 법사위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운영위원장도 관례에 따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대비해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했고, 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쟁길 방침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단독 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민생 국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방탄’이 목적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철통방탄’이 시급한가, 우리 국민의 ‘민생현안’이 시급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다”며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우원식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여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되는 등 여당이 먼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부터 먼저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말하는 관례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차지해 법안을 36.6%만 처리한 과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며, 예산안 처리조차 매년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폐를 관례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의 문리는 총선 불복이다. 민심은 21대와 달리 관례를 깨고 일하는 국회, 민생 살리는 국회, 잘못된 따지는 국회가 돼라 명하고 있다”며 “마지막이다. 법과 원칙대로 국회

에 나와 일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내일(10일) 표결에 의해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일정을 재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원 구성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 민주당이 10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18개까지 간다는 확실한 안을 갖거나 계획을 실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간파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럴 경우 22대 국회는 개원부터 여야 간 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우원식 의장 역시 18개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일단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의 우선 처리만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연 기자 syj@metroseoul.co.kr

# 尹, 올해 첫 순방... 중앙아시아와 ‘K-실�크로드’ 협력

터르크·카자흐·우즈베크 국민방문  
지난 12월 순방 이후 6개월 만의 재개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5박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민 방문길에 오른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1일 네덜란드를 국민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박7일의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민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추진한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10~11일), 카자흐스탄(11~13일), 우즈베키스탄(13~15일)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올해 첫 순방이자,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방문을 재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3개국을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한다.

우선 윤 대통령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хам메도프 투르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MOU를 체결

한다. 투르크는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양 정상은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11~13일 카자흐스탄을 국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카심-조마르트 토크야예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한다.

다음날인 12일에는 대통령궁에서 토크야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

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윤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진 카자흐와 양국 간 리튬·우라늄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카자흐 간 산업 발전과 경제 안보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13~15일에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동포만찬

간담회를 갖고,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야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한-우즈베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15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대(對)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이은 외교 전략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K-실�크로드의 추진 체계는 ‘로드(ROAD)’의 앞글자에 담겨 있다.

R은 ‘리소시스(Resources)’, 자원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에너지 자원 파트너십

을 구축해 에너지 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핵심 화학물 공급망, 원전과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한다.

O는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칭한다.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의 동반 성장을 가속화하면서 기후 위기, 식량 위기, 보건 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역량을 함께 증진한다.

A는 ‘어컴퍼니(Accompany)’, 동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대를 바탕으로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D는 ‘드라이브(Drive)’인데 이는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정부, 기업, 국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의 협력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이번에 방문하는 카자흐·우즈베크·투르크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과 우리나라 간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도 창설하기로 했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에 이번 순방은 내년에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서연 기자

# ‘지구당 부활’ 논란... “정치개혁” vs “불법 정치자금 통로”

이재명·한동훈 “정치 진입장벽 낮춰야”  
유승민 “원외 당협위원장 위한 것”

여야의 주요 차기 대선 후보급 인물들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 제도 부활을 22대 국회의 당면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취지와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설치됐던 중앙 정당의 하부조직을 말한다. 국민의힘이 당원협의회, 민주당이 지역위원회를 두고 지역조직을 꾸리던 전에는 지구당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상향식 정당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당 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지역구 선거의 선거 사무실로 활용되거나 막대한 정치자금들이 흘러들어오는 등 폐단이 쌓인 끝에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됐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사라졌던 지구당 제도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부활하

려는 조짐이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치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른 의견도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정치후원금을 받아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지는 것인가”라며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

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는가”라고 했다.

지구당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지역 토호들과의 유착, 이어지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낼만큼 한국 정치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부활할 우려를 품는 사람들도 많다.

/백태홍 기자 pth7285@





# Hana Bank Invitational

한일 스타들의  
불꽃튀는 대결!

함정우  
Jeongwoo HAM

한승수  
Seungsu HAN

이라타 켄세이  
Kensei HIRATA

박상현  
Sanghyun PARK

이나모리 유키  
Yuki INAMORI

양지호  
Jiho YANG

히가 카즈키  
Kazuki HIGA

2024.6.13(목) - 6.16(일)



방송 SBS Golf 2

장소 남춘천컨트리클럽 Nam Chun Cheon C.C.

남춘천 컨트리클럽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유상증자에 인수전까지... 우리금융, 비은행 강화 속도전

저축은행 안정적 포트폴리오 재편 1000억 규모 유상증자 안전 결의 에프앤아이도 1200억 유증 추진 포스증권 이어 롯데손해보도 '눈독'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비은행부문 강화에 전념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전체 실적에서 은행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만큼, 비은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안전을 결의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이번 유상증자를 ▲가계신용대출 점진적 확대 ▲상생금융 확대 ▲부동산대출 비중 축소 등으로 대표되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재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체질 개선은 물론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자회사 간 시너지를 기반으로 비은행 부문 강화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리금융 계열 부실채권(NPL) 투자전문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역시 1200억원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이번 유상증자로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자기자본이 3200억원대로 증가



서울 소공로 우리금융지주 전경.

/우리금융

하게 된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지난 2022년 1월 우리금융그룹이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와 향후 NPL 시장 규모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출범한 NPL 및 기업구조조정 투자 전문회사다. 이번 자본 확충으로 우리금융의 비은행 부문 역량 강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은 올해 비은행 강화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그룹의 핵심 목표로 삼아 증권업 진출을 우선적으로 공표했다.

이후 지난달 3일 이사회서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포스증권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전을 의결했다. 숙원사업인 증권업 재진출을 10년 만에 본격화한 것이다.

우리금융은 증권업 재진출에 만족하지 않고 보험업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우리금융은 롯데손보 인수희망서(LOI)를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에 제출했다.

롯데손보는 자산 기준으로 국내 업계 7위다. 현재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롯데손보 시가총액은 1조2000억원, 경영권 프리미엄, 보험계약마진(CSM)

2조원대를 합하면 롯데손보 매각가는 2조~3조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이중 레버리지 비율은 올해 1분기 96%로 금융당국의 관리기준 130%와 비교하면 자회사 지원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우리금융의 자본총계와 자회사 출자총액을 고려하면 7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 출자도 가능하지만,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이 최근 비은행 부문의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배경에는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우리금융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 8245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7897억원이 은행 순이익으로 은행 의존도가 95.8%에 달한다. 타금융지주의 경우 KB금융(37.1%), NH농협금융(64.7%), 신한금융(70.3%), 하나금융(81.5%) 등 대부분 은행의 의존도가 90%를 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최근 유상증자나 증권·보험업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은행 의존도 탈피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며 "비은행 강화를 통해 실적개선과 명가재건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보험 브리핑



한정선 한화손해보험 부사장(오른쪽)과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서울시청 3층 회의실에서 '웰컴키즈 안심보험' MOU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서울시 카페서 아이가 다치면 치료비 최대 2000만원

한화손해보험이 서울특별시와 함께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판매한다.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공동 참여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서울시청 본관 여성가족정책실장실에서 '웰컴키즈 안심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전국 최초로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 및 카페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구체적인 보장 내역은 ▲시설소유관리자담보 대인 1인당 1000만원 ▲구내 치료비 담보 1인당 100만원 ▲종업원 배상담보 1인당 1000만원 등으로 구성했다.

보험료는 영업장 면적 100㎡ 기준 연간 2만5000원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휴게음식점은 2만6000원에 가입할 수 있다.

## 삼성화재 손보 우수인증설계사 5665명 업계최다 배출

삼성화재가 우수인증설계사가 배출 속도를 높이면서 건전한 영업 문화를 정착한다.

◆ 우수인증설계사, 손보업계 최대 삼성화재는 2024년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선발 결과 총 5665명의 우수인증설계사를 배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우수인증설계사 중 30%가 삼성화재 소속이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했다.

삼성화재는 우수인증설계사를 작년 대비 281명 더 배출했다. 설계사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고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는 단 한 건도 없어야 하며 보험계약의 13·25회차 유지율을 각각 90·80% 이상 달성해야 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상가 투자수익률 0%대... 코로나 때보다 공실률 높아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 7.3% 서울 중대형 공실률도 8.4% 달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업용 부동산 거래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가운데 우량자산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9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올해 상반기 'KB 상업용 부동산시장 리뷰'에 따르면 1분기 상업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1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줄었다. 2021년 고점과 비교하면 54.2%나 급감했다.

반면 고가의 우량 자산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1분기 상업용 부동산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말 대비 3.5% 상

승했다.

연구소는 "상업용 부동산은 지역별로는 서울, 자산 유형별로는 오피스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우량 자산 중심의 보수적 투자 기조가 확대됐다"며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하반기 우량 자산에 대한 거래 풀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 회복세가 백화점과 무점포소매업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소규모 상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보다 공실률이 높아졌다.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3%로 5% 안팎이었던 팬데믹 이전 뿐만 아니라 6%대였던 팬데믹 기간에 비해서도 높았다. 투자수익률은 0.9%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연구소는 "공실률 증가와 임대가격 하락,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위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와 기준금리 인하시기 지연으로 상가 수요는 당분간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때 인기가 높았던 꼬마빌딩(중소형 빌딩) 역시 거래는 일부 살아났지만 저가매물만 거래가 됐다.

서울의 중소형 빌딩 평균 매매가격은 1분기 85억6000만원이다. 작년 2분기 106억2000만원이었던 평균 매매가는 4분기 97억60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 90억원 아래로 내려갔다.

도심권의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서울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8.

4%에 달했다.

오피스텔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다.

1분기 매매 거래량은 7000호로 2021년 1분기 대비 54.8% 감소했다. 지난 3월 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하락하며 2022년 9월 이후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전용면적 60㎡ 초과 중대형 오피스텔이 주택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연구소는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 성격이 강해 주택시장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당분간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매수 수요 회복이 쉽지 않아 거래 침체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하나銀, 4년간 한국관세사회 자금 관리

상생협력 위한 주거래은행 MOU CMS 도입 ERP 데이터 연계·지원

하나은행이 한국관세사회와 상생협력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으로 향후 4년간 한국관세사회의 자금관리를 담당한다.

하나은행은 우선 관세사회 내 통합 자금관리시스템(CMS)을 도입하고 ERP 데이터를 연계해 효율적인 자금 업무를 지원한다.

관세사회 홈페이지 내 '하나은행 모

바일 브랜치'를 제공해 디지털 금융환경을 조성한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 적립식 상품의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또 관세사회 및 전국 지부별 전담 영업점을 지정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세사회 거래 법인에게도 보증서 대출 보증료 지원 및 각종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다각적인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과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2300여 명의 관세사와 6000여 명에 달하는 관세사무소 임직원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해

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한국관세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Q 르포 | 현대트랜시스 동탄시트연구센터

# “2만번 이상 반복테스트 수행”... 시트 개발 전과정 ‘뚝딱’

국내 최대 규모 시트 전문 연구소  
첨단 설비 갖춰... 신기술 개발·설계  
“1~3열별 기준 500여개 테스트”

‘2만번 이상의 반복테스트와 500건 이상의 성능’

지난 5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트랜시스 동탄시트연구센터. 이 곳은 국내 최대 규모(대지 4만5705㎡, 연면적 2만7031㎡)의 자동차 시트 전문 연구소로 2007년 70여명의 연구·개발 인력으로 시작해, 현재 약 500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다. 현대트랜시스시트연구센터에서는 시트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개발 전과정을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첨단 설비를 갖추고 신기술개발·설계·시험검증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시험동에서는 시트의 다양한 연구 개발과 안전성 시험 테스트가 한창



현대트랜시스 동탄시트연구센터 홍보관에 설치된 현대트랜시스 UAM 시트



연구원들이 충돌 상황을 가정해 대차(슬레드) 위에 더미가 탄 시트를 올린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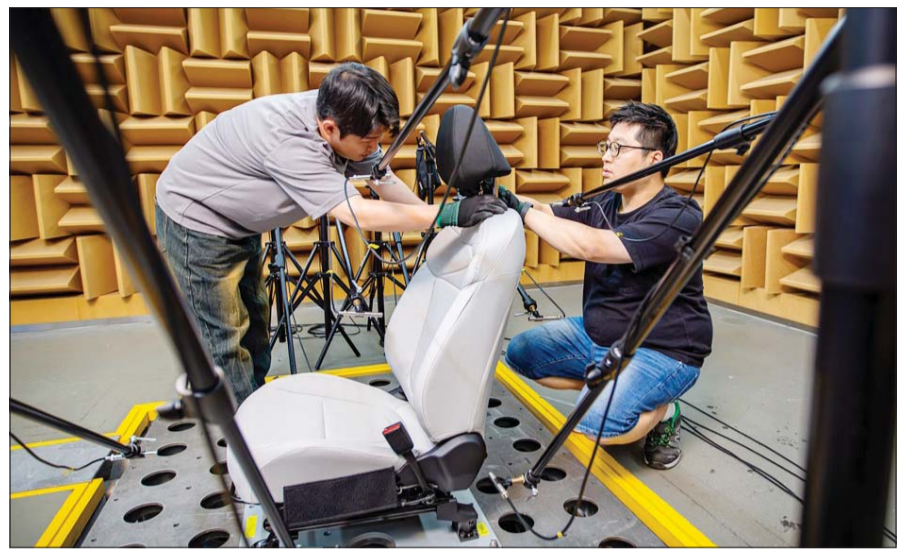
1400kg에 달하는 무게로 벨트를 당겨 시트에서 벨트가 분리되는지, 충돌 사고시 헤드레스트가 목의 충격을 얼마나 흡수하는지, 이런 시험에서 나온 값이 법에 정해진 규정에 만족하는지 등을 시험한다.

복합환경진동(BSR) 시험실에서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80도에 이르는 가혹한 환경에서 시트의 열선·통풍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워내구 시험실에서는 시트에 적용된 기능을 수백번 반복 설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또 시트에 적용된 가죽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2만번 이상의 반복되는 테스트도 진행됐다.

특히 시트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슬레드(SLED) 시험에서는 시속 80km의 속도로 후방에서 추돌했을 때 시트에 전달되는 속도인 41km/h로 충격을 가했을 때 상황을 설정했다. 충격 테스트는 육안

### UAM 시트 등 선행기술 연구 ‘PBV 양방향 플립업 시트’ 전시 “자율주행 시대 생활공간 제공”

으로 확인이 어려워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엄청난 충격을 가했을 때 시트와 인체 모형 더미의 움직임을 분석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설계에 활용하고 있다.



시트 소음을 측정하는 BSR 시험

최대진 현대트랜시스 시트시험팀 책임연구원은 “시트는 안전에 직결되다 보니 법규 항목으로 지정해서 각 나라마다 정해진 법규를 충족해야 한다”며 “총 200여개 테스트가 있고, 사양별로, 1~3열별로 나눠서 본다면 500개 정도 된다”고 말했다.

현대트랜시스 시트연구센터는 자율주행, PBV,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시트 선행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자율주행 시대에는 생활 공간으로서 다양한 콘셉트를 제공하는 시트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트랜시스는 내년 7월 출시되는 기아의 중형 PBV 모델인 ‘PV5’에 탑재

할 시트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가 선행 개발한 ‘PBV 경량 양방향 플립업 시트’는 접이식 의자처럼 일자로 세울 수 있고, 순방향·역방향으로 전환하거나 롱 슬라이딩 기능을 넣어 공간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이날 홍보관에서는 UAM에 적용될 미래 모빌리티 시트도 경험할 수 있었다.

여수동 현대트랜시스 사장은 “자동차의 시트는 이동하는 나의 작은 집이 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대트랜시스는 편안함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디자인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철강업계, 야간조업·추가근무 나선다

### 지정학적 리스크 등 시황 악화 대비 동국제강 인천 공장 야간생산 전환 포스코 임원 ‘주 5일제’ 비상근무

건설 경기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국내 철강사의 시황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야간 조업 체제로 전환하거나 임원 근무 일수를 늘리는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데 분주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회복의 지연으로 철강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동국제강은 이달부터 인천공장 전기로 공장을 야간 생산 체제로 전환했다. 앞서 동국제강은 지난 2023년 7월 인천공장에서 야간 조업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후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이달부터 상시 야간 조

업을 결정한 것이다.

동국제강은 낮에는 전기로를 끄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공장 가동 시간을 조정했다. 다만 기존의 4조 3교대 체제는 유지된다. 회사는 야간 조업을 통해 철근 생산비의 10%를 차지하는 전기료를 절감할 방침이다. 산업용 전기료(kWh 기준)는 오전 8시~오후 6시 평균 208원에 달하는데 오후 10시~오전 8시는 105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동국제강 이외 철강사들도 시황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는 데 사활이다.

포스코는 지난 1월 도입한 ‘격주 주 4일 근무제’를 임원에 한해 다시 ‘주 5일제’로 돌아가기로 했다. 철강업황 악화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로 예정됐던 전기로 특별보수 기간을 확대했다. 현재 인천공장 전기로 지붕 보수를 진행하며 공장을 비가동해 생산량을 조정하고 있다. 비수기에 대응해 공장 보수 등 생산력 조정과 재고의 탄력적 운영으로 시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철강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업계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중동 등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중국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제철 서강현 사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5일 당진제철소 기술연구소 1층 로비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현대제철

### 서강현 “탄소중립 시대, 맞춤형 준비해야”

(현대제철 사장)

#### 현대제철 CEO 타운홀미팅 소통 중심 조직문화 혁신 강조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이 임직원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회사의 성장과 비전 등을 논의했다.

서강현 사장은 지난 5일 창립 71주년(창립기념일 6월 10일)을 앞두고 ‘CEO 타운홀 미팅’을 통해 임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당진제철소 기술연구소 1층 로비에서 진행됐으며 현장 참여자 50여명 외에 각 팀 및 개인 참석자들이 600여 개의 회선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한 가운데 전 사업장에 생중계됐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서강현 사장 개인신상에 대해 알아보는 ‘SEO치 현대제철’과 임직원들의 사전 및 현장 질문에 답변하는 ‘무엇이든 물어보CEO’ 등의 코너로 진행됐다.

서강현 사장은 이날 미팅을 통해 현대제철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임직원들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본인의 사례를 들어 직원 개인의 성장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서 사장은 현대제철의 비전에 대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라고 소개하며, 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준비를 해야 하며, 블록화 되어 가는 각국의 철강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이며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앞으로 타운홀 미팅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최고 경영자와 임직원간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한화오션, 전전기 함정 핵심기술 개발

### 안정적 전력 제어 기술 확보

한화오션이 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장비와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동력을 전기로 대체한 차세대 전전기 함정 운용을 위한 핵심기술인 ‘함정 통합전력 시스템 제어 및 해석기술’ 과제 수행을 완료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5월 31일 서울 동작구 국방신속특기기술연구원에서 과제 참여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과제 종료회의를 갖고 해당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인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전전기 함정은 작전 중에 고속으로 기동하며, 이에 따라 추진을 위한 대용량의 전력부하가 소요된다. 고속 추진

중 고출력 전자기 무장을 사용할 경우 급격한 전력 사용량 증가로 추진성능이 저하되거나 적시 전자기 무장 사용이 불가하며, 최악의 경우 함정 내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완료한 수행 과제는 전전기 함정의 작전운용에 있어 안정적인 전력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작전 수행 능력과 함정의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서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순환경제”... 인프라·기술 개발 가속

전기차 확산 추세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협력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70조원에서 2050년 약 6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차되는 전기차가 늘수록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2025년 56만대에서 2040년 4227만대, 이에 따른 폐배터리 발생량은 44GWh(기가와트시)에서 3339GWh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 속도에도 가속이 붙고 있다. 내년이면 1세대 전기차가 시장에 출시된 지 약 10년이 돼, 배터리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후처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처리 공정은 방전·해체·파쇄 순으로 이뤄진다. 사용 후 배터리 내부 전류를 완전히 없애는 방전해체 후 이를 가루 형태로 분쇄한다. 만들어진 가루를 블랙 파우더라 부른다.

후처리 과정에서는 블랙 파우더를 습식 제련해 핵심 원료를 뽑아낸다. 주로 양극재 주요 광물인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할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은 협력을 통한 폐배터리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각 사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활용하



전기차에 장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 팩.

/사서터스톡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 2030년 70조서 2050년 600조 전망

배터리 업계, 기업 간 협력 전략 국내외 재활용 밸류체인 강화 전구체 복합액·양극재 생산 등 신규 공장 가동으로 시장 진출

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현대글로비스와 에코프로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전기차 운송에 특화됐으며 에코프로는 배터리를 회수해 처리를 거쳐 블랙파우더로 만드는 데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국내외 재활용 사업 밸류체인 강화뿐만 아니라, 재활용 사업 운영체제, 재활용 공정 자동화 등 사업 전반 협력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사 ‘얼티엄셀즈’는 미

국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나선다. 레드우드는 오하이오주 워런에 위치한 얼티엄셀즈 1공장과 테네시주 스프링힐 소재 2공장에서 발생한 양·음극재, 배터리 스크랩을 받아 재활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새빛캠, GS건설 등이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새빛캠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전구체 복합액, 재활용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GS건설은 자회사 에너지머티리얼즈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진출했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하반기 폐배터리 공장을 상업 가동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터리 업계가 부진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를 대비해 폐배터리 사업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기아, 세 번째 전기차 ‘EV3’ 합리적 가격에 대중화 선도

전국 지점·대리점 등서 계약 시작 충전 인프라·중고차 가격 보장 등 전기차 이용 편의성 극대화 앞장

기아가 국내 전기차 대중화를 이끈다.

기아는 전용 콤팩트 SUV 전기차 더기아 EV3(The Kia EV3, 이하 EV3)의 사양 구성과 가격을 공개하고 지난 4일부터 전국 지점과 대리점에서 계약을 시작했다.

EV3는 국내 시장 기준 21년 기아 첫 E-GMP 기반 전기차 EV6와 2023년 대형 전동화 플래그십 SUV인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다.

기아는 EV3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해 더 많은 고객이 전기차를 접하게 함으로써 기아의 전동화 선도 브랜드 지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V3의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 스탠다드 모델 ▲에어 4208만원 ▲어스 4571만원 ▲GT 라인 4666만원, 롱레인지 모델 ▲에어 4650만원 ▲어스 5013만원 ▲GT 라인 5108만원이다.

기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료 후 세제혜택 적용 기준 EV3의 판매 가격을 스탠다드 모델 3995만원부터, 롱레인지 모델 4415만원부터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할 경우 고객들이 스탠다드 모델은 3000만원 초중반, 롱레인지 모델은 3000만원 중후반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는 정부 부처 인증 절차 완료가 예상되는 7월 중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기아는 고객이 전기차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아의 모든 전기차를 대상으로 ‘e-라이프 패키지’를 선보인다.

e-라이프 패키지는 고객이 전기차 보유과정 전반에 필요한 충전, 차량케어, 중고차 가격 보장 서비스를 한데 묶은 전기차 전용 프로그램으로, 이번 EV3 계약 개시에 맞춰 신규 서비스를 추



기아 더기아 EV3 실내.

가하고 기존 운영 서비스를 일부 개편했다.

기아는 고객의 편리한 충전을 위해 ▲단독/공동주택 등 거주 환경 맞춤형 충전기 설치 지원 서비스 ▲공용 전기차 충전소를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전 로밍 서비스 및 구독형 충전 요금제 ▲긴급 충전 필요 시 차량 픽업 후 충전 및 인도를 제공하는 온디맨드 픽업 충전 솔루션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아 EV 구매 후 3년 내 기아 신차 구매 시 중고 EV 잔존가치를 최대 60%까지 보장해주는 ‘중고차 가격 보장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기아는 디즈니와 협업을 통해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와 EV3가 함께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영화관에 차량을 전시하며 ‘인사이드 아웃 2’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제작해 기아 카앰라이프몰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은 “차급을 뛰어넘는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EV3의 국내 계약을 시작하며 고객이 다양한 접점에서 EV3를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전기차 구매를 주저한 고객이 망설임 없이 EV3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G유플러스가 알뜰폰 공용 유심 ‘원칩’을 전국 철도역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

## LGU+, ‘원칩’ 철도역 편의점서도 판매

공용 유심 스토리웨이 판매개시 지하철역 자판기 판매 호조 영향

LG유플러스가 알뜰폰 공용 유심 ‘원칩’을 전국 철도역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원칩은 그동안 전국 이마트24 편의점, 지하철역 자판기 등 오프라인 채널과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 중이었다. 이번에는 전국 한국철도공사 관할 철도역 내부에 있는 스토리웨이 편의점 240개점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

LG유플러스는 원칩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원칩 판매 건

수는 60만개로 지난 2년간 연평균 220% 증가했다. 전체 판매량 중 오프라인 채널 판매량이 52만개로 약 88%에 달했다.

특히 전국 지하철역 자판기에서 4만개가 넘는 원칩이 판매됐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하철역 자판기 388대에서 원칩을 판매했으니 자판기 1대당 평균 판매량으로 환산하면 100개가 넘는다.

LG유플러스는 지하철역에서 원칩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고객 수요를 확인해 스토리웨이 편의점으로 판매 채널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SKT ‘골드번호’ 주인공 누구? 번호 1만개 추첨 나선다

SK텔레콤이 ‘1111’, ‘0002’, ‘3000’ 등 특정 패턴 또는 특정한 의미(‘1004’, ‘1472’ 등)를 갖는 골드번호 1만개 사용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골드번호는 기억하기 쉽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SK텔레콤에 따르면 가장 인기있는 골드번호는 숫자가 ABCD-ABCD형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는 유형이다.

이번에 응모할 수 있는 골드번호는 9가지 유형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정부 기관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 위원회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가입 고객이나 신규 가입 예정 고객 모두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 T다이렉트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당첨 결과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당첨된 번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19일 사이에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과 T다이렉트샵에서 등록해야 한다.

/김승중 기자 sejkim@



기아 더기아 EV3 외장.



PS5

CAPCOM



# DRAGON'S DOGMA III

## 절찬 판매 중



# 코스피, 2700선 회복... 美 FOMC 앞두고 금리인하 '주목'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코스닥, 3.12% 상승... 866.18 기록  
ECB 기준금리 인하 등 外인 투심 개선  
美 지난달 CPI·PPI도 발표 예정  
금리인하 기대 부응 시 상승 탄력 ↑

최근 반등에 성공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주에는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예정돼 있어 증시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OMC 회의 후 공개될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가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에 부응한다면 안도 랠리가 펼쳐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실망감이 확대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코스피는 전주보다 86.15포인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33.17포인트(1.23%) 오른 2722.67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7.7원 내린 1365.3원으로, 코스닥지수는 15.43포인트(1.81%) 상승한 866.18에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3.27%) 오른 2722.67, 코스닥은 같은 기간 3.12% 상승한 866.18을 기록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데다 4월 개인소비 지출(PCE) 가격지수 정체와 미국 5월

제조업 지표 둔화 등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안감의 완화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심리도 개선됐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지난달 말 4.6%대로 올랐다가 지난주 한때 4.2%대로 떨어졌다. 이에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7053억원, 183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8560억원을 순매수,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이같이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에서는 오는 13일(한국시간) 새벽에 공개될 6월 FOMC 회의 결과와 점도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준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이하 현지시간) 6월 FOMC 회의를 열고 미국의 금리를 결정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FOMC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회의 직후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점도표에서 올해 인하

횟수 전망치가 1~2회 예상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점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연내 금리인하 1번을 선반영해 왔다는 것"이라며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신중해지고, 다소 패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연내 2번 금리인하로 점도표 변화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6월 FOMC 회의를 전후해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올해 2번 금리인하 점도표와 함께 2개월 연속 물가 둔화가 확인된다면 7월 FOMC에서 금리인하 단행 기대가 커질 것"이라며 "6월 FOMC와 5월 CPI, PPI 확인 이후 7월 금리인하 확률이 금리동결 확률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할 경우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상승 탄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AI 수요증대로 '20만 닉스' 명성 회복

metro 관심종목  
SK하이닉스

전 거래일비 7.12% ↑... 20만7500원  
엔비디아 도약, TSMC 협력 논의 영향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요 증대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 도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SK하이닉스가 '20만 닉스'의 명성을 다시 회복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7.12% 오른 20만7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9일 이후 6거래일 만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한 달 동안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지만 엔비디아의 도약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에 큰 힘이 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3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종가 20만원대를 기록하며 29일 장중에는 21만원 선까지 이르며 투자자들의 투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엔비디아의 영향은 물론, 최대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기업인 TSMC 회장과 만나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SK하이닉스는 여세를 몰아 SK하이닉스는 지난 4일부터 나흘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 '컴퓨텍스 2024'에 처음으로 부스를 차리는 등,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AI시대'를 주제로 열린 해당 박람회에는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리사 수 AMD CEO, 팻 겔싱어 인텔 CEO, 웨이저자 TSMC CEO, 르네 하스 ARM CEO 등이 모여 이목을 끌었다.

SK하이닉스는 "'토털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컴퓨텍스에 처음으로 참여했다"며 "업계 최초, 최고의 제품을 통해 AI 시대를 이끄는 진정한 '퍼스트 무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가는 '20만 닉스'에 안착한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26~28만원까지 예측하고 있다. SK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올렸다. 다올투자증권은 26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고영민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흑자 전환을 예상하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AI 수요 외에 레거시(구형) 수요의 회복세가 동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임직원 모습.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기술사업평가 통과

초격차 특례제도 통해 평가 받아  
여유자금 유동성 확보... 상장 추진

국내 최초의 오가노이드 전문 신약개발 혁신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기술사업성평가를 통과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에 한걸음 다가섰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2023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2024년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으로 인정받고 초격차 특례제도를 통하여 기술사업성평가를 받았다. 초격차 특례제도는 소부장 특례제도와 동일하게 한 개 기관으로부터 A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기술사업성평가를 통과하는 코스닥시장 상장 특례제도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오가노이드 기술은 동물시험의무화 폐지 등의 움직임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의 기술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인정받은 재생치료제 생산 기술력과 성장성, 신소재 평가 솔루션의 사업화 경쟁력 및 성과를 인정받아 기술사업성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시리즈 A와 B를 통하여 누적 480억원 수준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비용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하여 향후 다년간의 여유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시리즈 C나 프리(Pre)-IPO 고려없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外人, 7개월 째 순매수... 투자금액은 줄어

금감원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국내 주식시장에 총 3조50억 순투자  
보유금액 잔액, 3개월 연속 하락세

국내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7개월 연속 순유입세를 이어갔지만 투자금액은 소폭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총 3조50억원을 순투자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조3670억원, 161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상장채권에서는 1조4760억원을 순투자했다.

주식시장에서 7개월 연속 순매수세는 보이고 있지만 지난 3월에 이어 순매수 금액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외국인의 지난달 순매수 금액은 4월 기록한 2조2620억원과 비교하면 1조원가

량 감소했고, 3월 매수 금액인 5조1020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1조5290억원에 그쳤다.

5월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대비 29.1%로 4월보다 0.2% 늘어났지만 보유금액의 잔액은 11조원 가량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 보유규모로는 미국이 외국인 전체의 316조원(39.9%)을 기록했고 ▲유럽 242조8000억원(30.7%) ▲아시아 117조4000억원(14.8%) ▲중동 14조6000억원(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채권시장에서는 상장채권 3조7240억원을 순매수하고, 2조248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1조4760억원을 순투자했으며 보유잔액도 함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미주, 유럽 순으



여의도 증권가 전경. /손진영 기자

로 순투자액이 많았으며, 보유규모는 아시아가 117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중 47%를 보유해 가장 보유규모가 컸다.

종류별로는 국채 등을 순투자, 통안채 등을 순회수하면서 5월 말 기준 국채 228조1000억원, 특수채 22조7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 말 기준 국채 224조2000억원, 특수채 22조8000억원을 보유했던 것과 비교하면 국채와 특수채 각각 지난달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 삼성전자 임원들, 자사주 총 1.5만주 매입

총 11억 4908억 어치 금액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7만원대에 머물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삼성전자 임원들이 주가 부양 차원에서 자사주를 잇따라 사들였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삼성전자 임원 6명이 자사주 총 1만5490주를 매입했다. 금액으로는 11억4908억원어치다.

박학규 경영지원실장(사장)은 결제일 기준 지난 3일 삼성전자 보통주 5500주를 주당 7만3700원, 총 4억535만

원어치를 장내에서 매수했다. 같은 날 노태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5000주를 주당 7만3500원, 총 3억6750만원어치를 장내에서 사들였다.

또 김동욱 재경팀장(부사장)은 지난 5일 2000주(1억5180만원)를, 정재욱 삼성리서치 글로벌 AI센터 부사장은 지난 3일 1330주(9948만원)를 각각 매입했다. 재경팀 담당 임원 윤주한 부사장은 5일과 7일에 총 660주(4975만원)를, 지원팀장인 박순철 부사장은 7일에 1000주(7520만원)를 매수했다. /원관희 기자



# “韓 토종기술 위성안테나, 美 해군함정 가장 높은곳에 우뚝”

## Q 르포 | ‘위성통신’ 인텔리안테크놀로지 평택공장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가 가까운 경기 평택 진위면에 있는 인텔리안테크놀로지 평택제2사업장. 흰색 위성안테나가 6층 옥상 곳곳에서 푸른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모두 인텔리안테크놀로지(인텔리안테크)가 연구개발해 실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다.

접시형의 둥근 파라볼라 안테나들 사이로 유독 네모 모양의 평평한 안테나 여러대가 눈에 띈다. 크기는 56×45cm, 두께는 12cm 밖에 되지 않는다.

인텔리안테크가 야심차게 개발, 차량 등의 지붕에 설치해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위성신호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평판형 위성안테나(Flat panel) 모델(OW10HL)로, 이달부터 납품처에 본격 공급할 제품들이다.

이 회사 강승구 부사장이 들고 있던 생수를 평판안테나에 갑자기 뿌리기 시작했다. 물은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게 안테나 표면을 타고 그대로 흘러내린다. 안테나에 묻은 것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물방울 뿐이다. 안테나 외부 전체를 오돌도돌하게 특수코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마치 고어텍스를 안테나에 입힌 셈이다. 물론 코팅 기술은 인텔리안테크가 자체 개발했다.

강 부사장은 “한번 코팅한 제품은 발수효과가 최소 5~6년은 간다. 스프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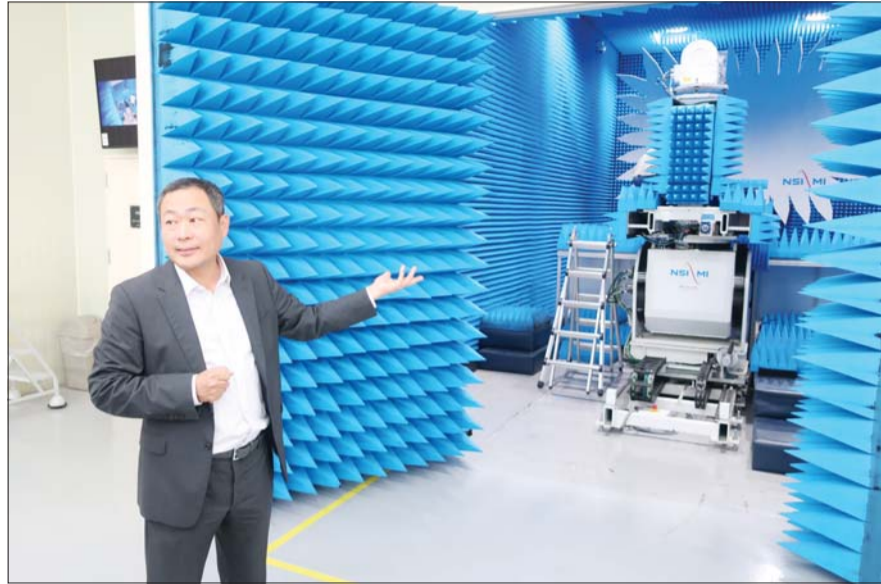
를 이용하면 효과를 더 연장시킬 수 있다. 뜨거운 사막이나 추운 극지방에서도 안테나가 제기능을 다 해야하기 때문에 내열·내한 온도는 55℃~45℃ 수준이다. 모빌리티용 제품인 만큼 극심한 흔들림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평판안테나 외부는 커브형태로 설계·제작해 폭설이 내리는 곳에서도 눈이 쌓이지 않고 위성신호를 무리없이 전달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인텔리안테크는 이달부터 영국의 위성통신사 원웹(OneWeb)에 이들 평판안테나를 본격 공급한다. 기존의 접시형 안테나에서 라인업을 넓히면서다. 특히 모빌리티용 저궤도 평판안테나는 인텔리안테크 제품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성상엽 대표는 “저궤도위성용인 평판안테나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해 상용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가격은 대당 4500~5000달러 사이로 스타링크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전했다.

원천기술은 모두 인텔리안테크가, 생산은 100%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다.

위성 통신은 그동안 한계가 많았던



성상엽 대표가 위성안테나를 시험하는 챔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달 ‘평판형 위성안테나’ 납품 모빌리티용 저궤도 평판안테나 인텔리안테크 제품이 세계 유일

美 해군서 WGS 위성 제품 사용 해상용 위성안테나 글로벌 1위 지난해 매출의 95% 해외서 벌어

고궤도(GEO)에서 저궤도(LEO), 중궤도(MEO) 군집 위성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스타링크와 원웹이 대표적인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이다.

인텔리안테크 역시 이런 추세에 맞춰 그동안 집중해온 해상용, 지상용, 항공용, 방산 분야 등에서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 선보이며 시장을 추가 공략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새 저·중궤도 위성통신 분야 안테나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인텔리안테크의 기술력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미군까지 뚫었다.

성 회장은 “미 해군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3년 만에 WGS(Wideband Global SATCOM system) 위성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개발 완료해 납품하게 됐다. 테스트를 하는데 1년 정도가 걸렸고



경기 평택에 있는 인텔리안테크 사업장.

1~3단계 모두 인증을 받은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면서 “미군내에도 많은 시장이 있지만 향후 호주 등 글로벌 군대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GS위성은 ‘5개의 눈’을 의미하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즉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5개 국가가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이들만 공유하고 있는 위성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장을 한국의 벤처기업이 위성안테나 기술력으로 뚫은 것이다.

인텔리안테크는 해상용 위성통신안테나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선점하고 있다. 요트, 크루즈, 상선, 군함 등에 달려있는 위성안테나 대부분엔 ‘Intellian’ 로고가 선명하게 붙어 있다.

3000~4000명이 탑승하는 대형크루

즈엔 7개의 위성안테나가 있다. 이 중 2개는 TV 수신 용도다. 이들 크루즈는 한 달에 통신료만 한화로 약 5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를 여행하며 전화하고 영화보고, SNS 등을 하기 위해선 그만큼 빠르고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무리없이 제공해야 가능하다. 바다를 떠다니는 300여 척의 글로벌 대형크루즈에도 여지없이 대부분 인텔리안테크가 만든 위성안테나가 달려 있다.

성 대표는 2004년 인텔리안테크를 창업했다.

“이동통신(장비)은 삼성이 잘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성통신은 (하는 회사)가 없었다. 내가 삼성과 경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의 기술을 갖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람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위성통신(안테나)을 창업 아이템으로 선택했다. 초기 3년은 후회도 참 많이 했다.(웃음)”

세계시장에서 큰 일을 해보겠다는 창업 당시의 목표는 인텔리안테크의 지난해 매출 3050억원 중 약 95%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엔 ‘일억불 수출의 탑’도 받았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UAE(두바이), 싱가포르, 중국(상하이), 일본 등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소만 12곳에 이른다. 전세계 기업고객과 파트너사는 600곳이 훌쩍 넘는다.

“우리는 글로벌 R&D를 통해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해외법인은 100% 자회사로 ‘원 컴퍼니’ 체제다. 자체 설계, 제조, 품질, 글로벌 유통, 서비스가 통일돼 있다. 1등 고객을 제일 먼저 만나 영업하는 게 우리의 원칙이다.”

세계시장을 향한 성 대표와 인텔리안테크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다.

성 대표는 지난해 2월부터는 벤처기업협회까지 맡으며 벤처·스타트업계 ‘애로 해결사’이자 후배들을 이끄는 선배 벤처기업인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인텔리안테크가 제조해 납품하는 다양한 위성안테나들.

##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오디션 진행

오늘부터 총 530개 팀 1차 오디션 로컬브랜드 등 5개 사업유형 지원 210개 팀에 사업자금 최대 6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오디션을 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세종(조치원)과 서울에서 각각 진행한다.

‘라이콘(LICORN)’이란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 로컬 분야 혁신기업’을 말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이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해 자기만의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오디션 형태의 단계별 경쟁방식을 도입해 유망 소상공인의 협력·융합, 성장 가능성, 성과 등을 평가해 사업 고도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업 지원 유형을 기존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글로벌 트랙에서 ▲온라인셀러 ▲백년가게·소공인 유형을 추가한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올해에는 예선에서 총 9137곳 소상공인이 지원해 43.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서류와 발표평가를 거쳐 1차 오디션에 참가할 유망 소상공인 530개팀을 선발했다.

해당 팀을 대상으로 유형별 주관기관을 통해 파트너 기업과의 팀 구성부터 발표자료 작성 및 전달 스피치스킬,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오디션은 ▲백년가게·소공인 유형(10~11일·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로컬브랜드 유형(12~14일·//) ▲라이프스타일 유형(18~20일·세종시 조치원1927아트센터) ▲글로벌 유형(26~27일·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 에비뉴 아트스탠드)을 일정별로 각각 진행한다.

1차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210개팀에게는 공간기획·시제품 제작 및 실증, 브랜딩·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며 추후 파이널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브랜드인 라이콘으로 육성해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한샘 분당점, 인테리어관 리뉴얼 오픈

한샘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한샘 분당점’의 인테리어관을 새로 단장하고 이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9일 한샘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연 분당점은 24년 간 1000만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하며 분당 지역 주민들의 홈인테리어 쇼핑 명소로 자리잡은 매장이다. 총

전시 면적 880평 규모로 부엌·욕실 등 인테리어 상품과 침대·매트리스·소파 등 가구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새롭게 리뉴얼한 인테리어관에 선 한샘이 올해 새롭게 선보인 인테리어 공사 패키지 ‘스타일에디션 소프트 화이트’를 모델하우스로 살펴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에몬스, 경기 광주점 전시장 문열어

에몬스가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에 대형 전시장을 열었다.

9일 에몬스에 따르면 경기 광주점 전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경춘대로 인근에 위치해 광주와 이천 지역 고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매장은 총 2층 규모로 1층은 거실·가구(소파, 거실장), 식탁, 침실가

구(침대, 장롱, 수납장 등)로 꾸며졌다. 2층은 매트리스 체험존, 서재·가구, 주니어 가구, 리클라이너 존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전시장은 ‘온전한 쉼이 있는 곳’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 연출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다. /김승호 기자



# 전국 첫 ‘반도체 칩 성능 검증·상용화’… 5년간 214억 투입

산업부, 시스템반도체 검증센터 구축  
4·5월 공모절차 거친 후 판교 선정  
하반기부터 기업들에 검증 서비스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이 설계한 칩의 성능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가 성남 판교에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개최된 반도체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입지를 지난 4.5월 공모 절차를 거쳐 성남 판교로 최종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 지방비 64억5000만원 등 총 21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 내 조성된다. 조성 사업에는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성남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검증용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전문 검증인력 채용 등을 통해 반도체 검증 환경을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텔레칩스에서 차량용 반도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구축하게 된다. 시스템반도체 설계·검증지원 경험을 보유한 기관 간 연계, 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인공지능(AI)·차량용·통신용 반도체 등에 대한 검증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검증 전문 인력과 수요 측면 전문가들이 팹리스 기업에 설계의 취약점 분석, 해결방안 제시 등 서비스를 제공해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센터 구축은 6월부터 시작해 8월까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구축된 장비들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에게 검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계 프로그램(EDA), 시제품 제작 등 반도체 설계를 중점 지원하는 ‘설계지원센터’와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검증지원센터 사업’을 연계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칩 설계-검증-상용화 전주기에 걸친 밀착지원을 통해 팹리스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트럼프 재집권시 韓 배터리산업 위축”

산업부, 美 대선결과 韓배터리 리스크  
IRA 이후 일본 제치고 美 점유율 1위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원이 9일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변화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IRA 이후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보고서는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며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에 대한 미국내 수요 확대 및 판매량 증가가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중일3국의 미국배터리 시장 월별 점유율 추세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 적용 직후인 2023년 6월 이후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같은 IRA 효과에 기반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최근 어려운 시장 여건 속 우리 배터리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재집권 이후 IRA가 폐지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면 투자 위축, 실적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트럼프의 IRA 폐지 입장이 우리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트럼프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 미국내 IRA 수혜지역, 경합주 등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내 7개 주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주자. /뉴시스

한국 배터리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시 지원 규모 축소 등 IRA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투자위축을 꼽았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한 후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지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자들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법안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IRA 지원 규모 축소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측이 정책효과에 비해 정부 재정 투입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IRA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트럼프 2기는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노동약자 보호”… 분쟁조정 지원 등 수행

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노동약자지원·보호법안 제정 시작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전담 지원하는 정부 부서가 새로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9일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1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을 토대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노동약자 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근로자 이음센터는 지난 4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 설치돼 임금 체불 등 각종 고용노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 기관이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등을 활성화하고, 일하는 여건 개선,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에도



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선다. 또 이음센터 등은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정책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조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미조직 근로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만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여명을 제외한 1860만명(약 87%)으로 추정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업체 정책과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행여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산재 트라우마, 산림치유로 극복하세요”

근로복지공단-산림복지진흥원 협업

산림치유를 활용해 산업재해 근로자가족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산재 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올해 처음으로 산림치유를 활용한 ‘산재근로자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앞서 올해 2월 진흥원과 산재

근로자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진흥원이 운영하는 전국 5개 산림치유시설에서 산재근로자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부부관계 회복과 자녀의 미래설계를 주제로 가족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영주국립산림치유원의 ‘수(水)치료’, 장성숲체원의 ‘소통 캘리그래피’, 청도숲체원

의 ‘한방차 만들기’, 대전숲체원의 ‘천연염색’, 춘천숲체원의 ‘산림레포츠’ 등 운영 시설에 따른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자녀의 미래 진로설계와 직업탐색을 위한 다양한 분야 명사 초청강의와 대학 캠퍼스 투어 등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여하는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 세부 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산재근로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화합과정은 회당 20명 규모로 2박 3일(금~일요일) 동안 운영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 참가자 모집

오늘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9일 답수 미세조류 분야 종사자를 위한 ‘2024년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다.

미세조류는 식물플랑크톤으로도 불리며, 수중에서 광합성을 하여 유기물을 생산하며 생활하는 단세포 조류를 말한다. 녹조류와 남조류, 돌말류 등이 흔히 관찰된다.

이 교육과정은 미세조류 분야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시작했다. 미세조류를 활용하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를 비롯해 관련 교육업무 종사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미세조류 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준별 3개 과정(기초, 실습, 심화)으로 진행되며 과정별 10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없으며, 교육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별 세부사항, 참가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nnibr.re.kr)의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교육 과정은 지난해 수료한 교육 참여자의 의견 및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 설계했다. 특히 실습·실습(품질관리 및 대량배양기술 등)이 전체 교육 과정의 60% 이상을 구성하는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가성비 좋은 너로 정했다!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 일정

A반 : 2024년 6월 3, 10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9시 (2일간)  
 B반 : 2024년 6월 13, 20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2일간)

교육 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 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 목표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수강 혜택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창업교육자료** 증정

수강 방법

1. 대한홍삼 홈페이지 > 상담신청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2. 문자 or 이메일로 성함과 연락처를 전송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법인폰 : 010-4480-0045 / E-mail : haettercs@naver.com

교육 주관



교육 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교육 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9번 출구에서 600m

교육 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고객센터 010-4480-0045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해양·근현대문화 연결하는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 시동

부산시-관세청, 복원·활용 '맞손' 전시관·다목적 공간으로 조성 국비 159억 투입... 2027년 개관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과 고관호 관세청장이 지난 7일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부산시와 관세청은 지난 7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고관호 관세청장이 참석했다. 부산세관 옛청사는 1911년에 준공된 부산항의 역사와 함께 국제무역도시로서 부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었으나, 1979년 부산대교 진입로 개설 공사에 따라 철거됐다. 이전부터 옛청사 복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해양 문화와 근현대 문화를 연결하는 대표 시설로 조성하자"는 시민 목소리가 커지고, 복합 재개발을 통해 관세청에서 복원할 부지를 확보하는 등 지진이 복원의 적기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던 부산세관 옛청사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부산의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써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상호 공동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진 진정성 있는 복원과 위상 확립을 위한 조사 연구 ▲복원 후 시민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주변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과 연계한 다양

한 콘텐츠 개발 및 교류 활성화 ▲그 밖에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복원될 부산세관 옛청사는 부산항의 역사와 관세청의 역할을 조명하는 전시관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할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비 159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1000㎡,

지상 2층, 침탑부 4층 규모로 복원하며 2026년 12월 준공해 2027년 3월쯤 개관 예정이다.

건물 자체가 지닌 멋과 더불어 바다와 어울리는 정취를 통해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오페라하우스, 부산항 1부두, 부산근현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등 주요 명소들과 자연스럽게 연계해 부산의 관광 시너지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부산항을 지키는 관세청과 협력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다.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은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부산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이 대역력적인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청과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광주시 창업 정보·정책 등 쉽게 찾아요

광주시가 클릭 한번으로 지역의 창업정보와 지원사업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광주스타트업플랫폼'을 개설했다.

광주시는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관련 정보와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광주스타트업플랫폼'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스타트업플랫폼'은 창업지원 정보를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비롯해 광주지역 창업 관계기관 정보가 수록됐다. /광주=양수영 기자

### 영양군 고독사 위험군 선제 발굴·지원

영양군은 최근 1인 가구와 중장년 및 노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위험군의 선제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적 안전망인 영양군 행복기동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장,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이웃들이 위기가구를 발견·신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지난 4일 경북도 출범식에 참여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전남도, 中企 10개社 수출 다변화 도모 獨·네덜란드서 310만 달러 수출 성과

식품 7개社, 화장품 3개社 참여 獨, 조미김 제품 등 수출업무 협약 네덜란드, 전복·오징어 제품 계약

전라남도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지역본부와 함께 수출 유망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독일과 네덜란드에 10개 기업을 시장개척단으로 파견, 110만 달러 현장 계약과 200만 달러 수출 업무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지난 1일까지 6일간 진행했으며 식품 7개 기업과 화장품 3개 기업이 참여했다.

파견 기업은 구매자 발굴 가능성, 수출준비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상담회 개최 한 달 전 잠재 구매자에게 기업 제품 제공과 매칭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하면서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상담회에선 전남지역 중소기업 10개와 현지 구매자 36개 기업 등 총 46개 기업이 참가해 1대1 상담으로 진행, 110만 달러 현장 수출계약과 200

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상담회에선 해산이 조미김 제품 40만 달러, 주식회사 바다명가가 김 제품 20만 달러, ㈜아라움이 크리스피 오징어 제품 20만 달러, ㈜해청정이 해초면 10만 달러 등 6개 기업이 11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상담회에선 완도삼영어조합법인이 전복 11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했으며, ㈜아라움이 크리스피 오징어 제품 40만 달러, 해산이 조미김 제품 20만 달러, 주식회사바다명가가 김 제품 20만 달러 등 4개 기업이 9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이밖에 유한회사 완도세게로237은 모듬해초, 주식회사 해농은 김 제품을 경향산업 유한회사는 보온재를 출품해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남해안 굴, 수출 1억 달러 '스타품목' 육성

경남도, 굴 까기 작업장 시설 개선

경남도가 미국 FDA 인증 청정해역에서 생산한 남해안 굴의 경남 최초 수출 1억 달러 스타품목 육성에 나선다.

경남도는 '2030 경남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 일환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굴 공급을 위해 올해 굴 까기 작업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의 굴 생산량은 25만t으로 전국 생산량 31만t의 78%, 수출은 7819만달러로 전국 수출액 8598만달러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대표 수산물이지만 대다수 굴 까기 작업장은 15년 이상 노후되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국비 신규사업



굴까기 작업장.

'정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96억 원을 확보해 굴 까기 작업장 시설개선 20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총 130개소까지 현대화할 계획이다.

굴 까기 작업장의 시설개선 시 신청은 6억 원, 개·보수는 2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군 수요에 따라 통영시에 62억 원, 거제시에 34억 원을 배정했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 산청군, 행정·문화 갖춘 복합센터 준공

산엔청 건강누리센터

산청군 최초로 행정 기능과 문화 기능을 갖춘 행정문화복합센터가 들어섰다.

지난 7일 산청군은 산청읍에서 '산엔청 건강누리센터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엔청 건강누리센터는 산청군 최초로 행정 기능과 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담아낸 행정문화복합센터다.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하나로 총 78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 착공, 이달 완공했다.

모두 3층 규모로 1층(619.31㎡)은 산청읍사무소 신청사로 민원 해결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2층(714.83㎡)은 주민들을 위한 동아리실 및 프로그램실이 조성돼 평생학습과 동아리 활동을 시행한다. 3층(589.28㎡)은 카페와 대강당 등 주민들이 음료와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구성됐다.

산청군은 산엔청 건강누리센터 건립과 함께 남부생활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시천면과 단성면에 주민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신등면에서는 지역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화 군수는 "산엔청 건강누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다"며 고 말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 대구경영자회 회장단, 저출생 극복 성금

(주)동원약품 등 6000만원 전달

대구의 기업 경영자들이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대구경영자회 회장단은 지난 7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 극복 성금 6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도에 전달했다.

이날 대구경영자회 회장단 기업들인 (주)동원약품(회장 현수환), 우성철강(회장 김영만), 대영전자(회장 백서재)는 각 2000만원씩 기부했다.

백서재 대구경영자회 회장은 "전국

최초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과 전쟁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경영자회 회장단분들의 성금 기부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저출생 극복 성금모금 캠페인' 주관 단체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모금회에 따르면 개인, 각급 단체, 기업인 등이 지난 3월 모금을 시작한 이래 9일 현재 29억원이 넘는 성금이 접수됐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 창녕군 인근 KTX역서 귀농귀촌 홍보

창녕군이 창녕으로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인근 도시의 KTX 역으로 찾아가 홍보 활동을 펼친다.

군은 오는 12일과 19일, 26일에 각각 창원 중앙역, 마산역, 부산 KTX 역에서 '찾아가는 창녕군 귀농귀촌 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녕군과 해당 KTX 역들의 협력으로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군 귀농귀촌 센터를 역으로 옮겨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 “성인병 걱정 No!... ‘저속노화 식단’으로 건강을 지켜요”

## 식품업계 ‘저속노화 식단’ 주목

### CJ제일제당 ‘햇반 곤약밥’

올해 월평균 판매 증가율 23.5%

### 풀무원 순두부·시금치 또띠아 출시 고단백 닭가슴살 캔 ‘리챔 순살꼬꼬’

### 하림 오!늘단백 프로틴 쿠키 2종 교원웰스 채소 재배 ‘웰스팜’ 운영



교원 웰스 ‘웰스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상에서 ‘저속노화 식단’이 화제다. 그동안 마라탕과 탕후루 등 자극적인 음식이 인기를 끌고, 배달 및 간편식이 일상화되면서 가공식품 노출빈도가 급증하면서 2030 세대 사이에서 성인병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가속노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면서 ‘저속노화’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저속노화 식단은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혈당지수가 낮은 잡곡밥을 먹고 반찬으로 나물이나 채소,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방식이다. 가공식품을 대신해 체리나 자몽 등 혈당지수가 낮은 과일을 곁들이는 방법도 권장된다.

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저속노화식단과 관련 간편식 또는 식재료의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저속노화 밥’의 인기가 뜨겁다. 병아리콩이나 곤약쌀을 섞은 밥으로 탄수화물을 상대적으로 적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이 회사 즉석밥 ‘햇반 곤약밥’의 올해(1~5월 기준) 월평균 판매증가율(전월 대비)은 23.5%를 기록했다.

지난 3월 곤약과 다양한 통곡물을 최적 비율로 배합한 ‘병아리콩퀴노아 곤약밥’과 ‘텐틸콩퀴노아 곤약밥’도 고식이섬유 제품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몰이하고 있다. 특히 식단관리를 하며 ‘밥’을 먹으면서도 탄수화물을 상대적으로 적게 섭취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입소문타고 있다.

CJ제일제당의 지난해 국내 햇반 매출에서 웰니스 즉석밥(곤약밥, 솔밥, 저단백밥 등)의 비중은 전년(2022년) 대비 약 두배 규모로 늘어 6.3%를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은 ‘햇반의 집밥화’를 목표로 웰니스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풀무원이 선보인 또띠아 제품 중 정제 탄수화물을 줄인 ‘통밀 또띠아’ 제품도 돋보이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제품의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매출증가율은 250%에 달해 또띠아 4종 전체 매출증가율(110%)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풀무원은 2020년 9월 ‘통밀 또띠아’를 출시했으며, 팬데믹 종료 후에도 또

띠아 품목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본격적으로 제품 라인업을 구축했다. 풀무원은 기존 ‘우유 또띠아’와 ‘통밀 또띠아’에 이어 지난해 10월 ‘순두부 또띠아’, ‘시금치 또띠아’ 2종을 추가로 출시하기도 했다.

저속 노화 식단의 일환으로 단백질 함량을 강화한 신제품도 눈에 띈다. 동원 F&B는 2021년 출시된 닭고기 햄 ‘리챔 프로틴’의 단백질 함량을 25% 늘린 고단백 닭가슴살 캔 ‘리챔 순살꼬꼬’를 출시했다. 회사 측은 이 제품이 한 캔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1일 영양 성분 기준치(55g)의 약 70%를 섭취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림도 건강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단백질 쿠키 ‘오!늘단백 프로틴 쿠키 2종’을 최근 출시했다.

업계에서는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만성 질환자(고혈압, 당뇨, 비만)가 급증하면서 저속노화 식단이 더 주목받고 있다는 해



순두부 또띠아와 시금치 또띠아 /풀무원

석이 나왔다. 실제 저속 노화 식단은 식습관 변화를 통해 신체 노화 방지 및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가 하면, ‘혈당 스파이크’(식사 후 급격한 혈당수치 상승)를 줄여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한 주방 가전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교원 웰스는 집에서 친환경 채소를 직접 길러 먹을 수 있는 식물재배기와 모종 정기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웰스팜’을 운영 중이다. 웰스팜은 가정에서도 사계절 무농약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식물재배기로 배송된 친환경 채소 모종을 디바이스에 꽂아서 키우기만 하면 된다. 디바이스가 전자동 시스템으로 식물 성장에 필요한 빛, 온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아울러 휴름의 작점기도 액상과당 대신 신선한 건강주스를 만들어 먹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속노화 식단 인기는 단순히 건강을 지향하는 것을 넘어 즐겁게 건강을 챙기는 ‘헬시플레이저’와도 맞닿아 SNS에 식단 인증샷을 올리는 등 젊은 세대에겐 새로운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도 떠오르고 있어 관련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롯데아울렛 ‘메종키츠네 아카이브’ 국내 최초 오픈

## 의왕점 글라스빌에 단독매장 세계 4번째 ‘아울렛 매장’ 열어

롯데아울렛이 전 세계 4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메종키츠네’ 아울렛 매장을 오픈해, 컨템포러리 상품군 강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일명 ‘신명품’이라고 불리는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의 인기가 뜨겁다. 실제로 롯데아울렛의 컨템포러리 상품군 매출은 올해(1~5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 불한 경관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아울렛 의왕점 같은 경우, 같은 기간 컨템포러리 상품군 매출이 20% 늘어나며 더욱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아울렛이 전 세계 4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메종키츠네’ 아울렛 매장을 오픈해, 컨템포러리 상품군 강화에 나선다. /롯데백화점

이에 롯데아울렛은 오는 11일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의왕점에 ‘메종키츠네 아카이브(Maison Kitsune Archive S)’를 국내 최초로 오픈한다. ‘메종키츠네 아카이브’는 여우 모양 로고로 유명

한 프랑스 컨템포러리 브랜드 ‘메종키츠네’의 아울렛 단독 매장을 일컫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곳(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일본 도쿄)에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 세계 4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의왕점에 오픈한다.

먼저, 의왕점을 상징하는 ‘글라스빌(GLASS VILLE)’에 단독 매장으로 선보인다. ‘글라스빌’은 바라산을 배경으로 푸른 잔디광장과 함께 야외에 조성된 단독 건물로, 투명한 유리 온실을 연상시켜 SNS에서 ‘인증샷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총 10개의 글라스빌 중 하나에 ‘메종키츠네 아카이브’가 단독 매장으로 입점하며, ‘메종키츠네’를 상징하는 ‘여

우’를 인테리어에 적극 활용해 인스타그램에 매력적인 요소를 더한다. 대표적으로 9m 높이의 천장에는 여우 모양의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하 푸드코트와 연결되는 입구는 ‘여우굴’을 연상시키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의왕점 ‘메종키츠네 아카이브’에서는 이월상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의류부터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대표 상품으로는 ‘칠락스 폭스 티셔츠’, ‘폭스헤드 가디건’, ‘폭스헤드 티셔츠’ 등이 있다. 특히, 신규 오픈을 기념해 4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메종키츠네’ 머그컵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세븐일레븐의 ‘킹장우’ 시리즈. /세븐일레븐

## 세븐일레븐 배우 이장우와 함께 ‘킹장우 시리즈’ 3종

세븐일레븐이 배우 이장우와 함께 ‘킹장우 시리즈’ 3종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킹장우 시리즈는 최근 거거익선(크면 클수록 좋다는 뜻의 신조어)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품질 향상을 위해 밥보다도 토핑양에 초점을 두고 증량한 점이 특징이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3월 성장하는 편의점 간편식 시장을 리딩할 새로운 모델링을 마련하기 위해 이장우와 손을 잡았다. ▲맛에 진심 ▲양에 진심 ▲요리에 진심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총 9종의 ‘맛장우’ 시리즈를 선보였다. 출시한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현재까지 총 350만개 이상 높은 판매 성과를 보였다.

‘맛장우’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이번에 맛과 양에 초점을 맞춘 ‘킹장우’ 시리즈를 내놨다.

새로 출시한 ‘킹장우두툼참치김밥’의 경우 기존 운영하던 참치김밥 대비 참치샐러드 양을 120% 증량했고 밥양도 늘려 김밥 지름을 4.5cm에서 5cm로 늘렸다. /최빛나 기자

## SSG닷컴, 50만원 이상 가구 매출 20% ↑

1~5월 매출분석 결과 학생·아동용 가구 매출 61% 늘어

가구는 프리미엄, 생활용품은 대용량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조사됐다.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 SSG닷컴은 지난 1~5월 SSG닷컴 매출을 분석한 결과 50만원 이상 가구와 인테리어 상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했고, 동일한 가격대의 학생·아동용 가구 매출은 61% 늘었다고 9일 밝혔다.

SSG닷컴은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아르테미데, USM, 프리츠한센 등의 인기가 높았고, 옷과 유아용품 한 번에 수납할 수 있는 에디키즈 베이비장 세트와 ‘서울대 의자’로 불리는 시디즈 아이블 등이 매출 상위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키친 카테고리에서는 고가 브랜드에 속하는 르크루제, 빌레 로이엔보흐를 중심으로 선물하기 매출이 64% 올랐다고 덧붙였다.

생활용품 카테고리에서는 대용량 상품 매출이 약 40% 증가했다. 세제 다우니와 피실, 기본에의 일회용 수세미와 행주, 아스토니쉬의 곰팡이 클리너 등이 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빛나 기자

## CU, 압도적 간편식 시리즈 3종 추가

치킨마요 정식 등 더해 총 16종

CU가 압도적 간편식 시리즈에 도시락 3종을 추가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치킨마요 정식’은 데리마요 소스, 김가루와 치킨 가라아게를 비벼먹는 도시락이다. ‘바삭불고기 정식’은 떡갈비를 김치와 소시지, 콘샐러드와 즐길 수 있다. ‘소시지&김치 정식’은 직화로 구워 불맛이 나는 소시지를 김치볶음, 계란후라이와 맛볼 수 있다.

크기와 중량, 품질을 극대화한 콘셉트의 압도적 간편식 시리즈는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샐러드, 디저트 샌드



/BGF리테일

위치 등 총 16종으로 구성됐다.

해당 상품은 주택가와 대학가, 관광지, 오피스가 등에서 인기를 끌며 출시 석달여만에 750만 개 이상 팔렸다.

/최빛나 기자



# “숏폼 마케팅, 소비자 구매 가능성 3.6배 높여”

## 디지털 마케팅 서밋 2024

강범석 샵라이브 본부장 연사 참석 ‘비디오 커머스&AI 주제’로 발표 ‘라이브 후 시청자 행동데이터 제공 반응 예측 숏폼 제작 AI도 준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라이브 영상이나 숏폼 영상 등을 활용할 경우 구매 확률이 3.6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비디오 커머스 분야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샵라이브의 강범석 본부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마케팅 서밋(DMS) 2024’에 연사로 참석해 최근 이커머스에 영상을 활용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조사 결과 영상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구매 가능성이 3.6배 높았다”고 9일 밝혔다. 숏폼을 통해 시작적으로 다양한



강범석 샵라이브 본부장이 디지털 마케팅 서밋(DMS) 2024에서 발표하고 있다. /샵라이브

콘텐츠를 제공했을 때 재미와 호기심을 유발해 구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강 본부장은 이날 “비디오 커머스&AI: 이커머스의 무한한 잠재력의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메타, 무신사와 함께 발표를 진행했다.

메타의 숏폼 영상 ‘릴스(Reels)’가

숏폼 마케팅의 대세로 자리잡은 가운데, 메타는 샵라이브와 함께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릴스를 만드는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보다 효율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했다고 강 본부장은 전했다.

함께 연단에 오른 메타의 홍주원 클

라이언트 파트너는 “과거와 달리 공을 많이 들인 고품질 콘텐츠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영상이 더 인기”라며 “샵라이브 솔루션을 활용해 매일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 영상 중 가장 호응이 컸던 구간들을 잘라 숏폼을 만들었더니 구매 전환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강범석 본부장은 “샵라이브는 무신사와 메타 등 고객사들이 다채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행동 데이터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구매전환으로 이어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다”며 “알고리즘 기반 시청자 맞춤 콘텐츠로 고객 경험을 강화하려는 기업의 움직임에 맞춰 소비자 반응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자동으로 뽑아내 숏폼으로 만들어 주는 AI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CJ온스타일

‘선재 업고 튀어’ 굿즈 온라인 최초 예약 판매



CJ온스타일은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사진)의 굿즈를 10일부터 온라인 최초 예약 판매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선재 업고 튀어’ 드라마는 끝났지만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선재 업고 튀어’의 지난달 서울 여의도 오프라인 팝업스토어와 이달 5일부터 운영 중인 부산 팝업스토어는 현장 방문을 위해 밤샘 대기까지 이뤄질 만큼 인기였다. 드라마 캐릭터에서 착안해 제작한 굿즈 역시 완판(완전판매) 행렬로 이어졌다.

CJ온스타일은 이처럼 높은 팬덤으로 흥행한 ‘선재 업고 튀어’ 굿즈를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선빈다. 10일 오후 12시부터 오는 17일까지 ‘선재 업고 튀어’ 굿즈 온라인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정식 판매 하루 전인 9일 오후 12시 CJ온스타일 모바일 앱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약 판매 영상이 공개된다.

이번 CJ온스타일 예약 판매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지 않았던 온라인 단독 상품 S목걸이와 10~20대 선재와 솔 모습을 형상화한 블록형 커플 키링 3종 등을 최초로 선보인다. 이외에 드라마 포스터 세트부터 청상아리 티셔츠 등 극 중 류선재, 임술 캐릭터를 상징하는 굿즈(MD) 22종도 판매된다.

/신원선 기자

## 에스아이빌리지

상반기 파이널 빅세일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자체 프리미엄 디지털 플랫폼 에스아이빌리지는 약 3주간 상반기 마지막 대형 쇼핑 행사인 ‘시마을 상반기 파이널 빅세일’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역대 최장기간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1, 2차에 걸쳐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다.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1차 행사에서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의 60여개 자사 브랜드를 최대 80% 할인 판매하고,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30%를 e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이에 더해 디딤티크, 바이레도, 산타마리아노벨라 등의 인기 니치 향수를 최대 25% 혜택가에 구매할 수 있는 니치 향수 기획전, 겨울 럭셔리 아우터 에르노 최대 70% 특가 등의 기획전을 일차별로 운영한다.

/최빛나 기자

# 식신, ‘식신e식권’ UX·UI 개편 등 리뉴얼

식권 결제 페이지 혁신적 개선 완벽한 오남용 방지 기능 추가 편리한 서비스 제공 중점

푸드테크기업 식신이 자사 모바일 식권 서비스인 ‘식신e식권’을 리뉴얼했다.

식신e식권은 식대 장부나 종이식권, 영수증 관리가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식대를 결제할 수 있는 기업용 모바일 식대 서비스다. 현재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반 기업,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사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앱 리뉴얼은 트렌디한 디자인과 사용자 친화적인 UX(사용자경험)·UI(사용자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기존 편의 기능 중 고객들의 개선 요청이 가장 많았던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크게 ▲사용자 중심 모바일 UX·UI 전면 개편 ▲고객의 손쉽고 편리한 이용 ▲가맹점 매장 정보 페이지 강화 ▲복지물, 예약, 배달 등 신규 기능 강화 ▲e식권 플랫폼과 외부 플랫폼 연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식권 결제 페이지가 혁신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완벽한 오남용 방지 기능까지 추가됐다.

식신e식권은 하루 24만명의 사용자

가 이용하는 만큼 성능과 보안 향상에도 중점을 두고 서버 이중화, 보안성 강화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썼다. 리뉴얼된 식신e식권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식권 앱은 6월 한 달간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안병익 식신 대표는 “이번 리뉴얼은 식신e식권을 애용하는 많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베스킨라빈스

‘우주 라이크 봉봉’ 출시 굿즈·사전예약 혜택

SPC 베스킨라빈스가 6월 이달의 맛 ‘우주 라이크 봉봉’ 출시를 기념해 ‘우주의외계인 프로젝트’ 굿즈(기념품)를 선보이고 사전예약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굿즈는 우주복을 입고 황금빛 아이스크림 콘을 들고 있는 귀여운 디자인으로 헬멧 부분을 통해 7가지 색상의 영롱한 오로라와 별빛이 쏟아지는 무선 프로젝트다. 캠핑 등 야외 활동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360도 회전 가능까지 탑재해 어디서든 나만의 우주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리모컨으로 오로라와 별빛의 밝기와 컬러 변경도 가능해 더욱 다양한 무드 연출이 가능하다.

굿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3일까지 해피포인트 또는 해피오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 티르티르 ‘마스크 핏 레드 쿠션’,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1위

모든 인종·피부톤 아우르는 쉐이드 10주요 뷰티 어워드서도 36관왕 수상

헬씨 라이프 뷰티 브랜드 ‘티르티르(TIRTIR)’의 베스트셀러 ‘마스크 핏 레드 쿠션’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지난 4월 한국 브랜드 최초로 파운데이션 카테고리에서 1위를 한 데 이어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전체 뷰티 카테고리 판매 1위에 등극하며 미주 시장을 강타했다.

최근 흑인 유튜버의 톤에 딱 맞는 쿠션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티르티르는 미주 진출 이후 모든 인종과 피부톤을 아우르는 다양한 쉐이드를 선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컬러 개발로 30개 쉐이드까지 확대 판매하고 있다. 티르티르는 현지 시장에서 확실한 수요가 있는 쉐이드 개발을 위해 글로벌 별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소비자들의 맞춤형 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티르티르의 ‘마스크 핏 레드 쿠션’이 아마존에서 뷰티 카테고리 1위에 등극했다. /티르티르

티르티르 ‘마스크 핏 레드 쿠션’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대히트를 기록했다. 일본의 주요 뷰티 어워드에서 36관왕을 수상하는 기업을 토한 것은 물론, 마스크 핏 쿠션 라인 누적 판매 1320만개를 돌파하여 티르티르를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 자리 잡게 한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이 제품은 영양감 있는 균일하고 촉촉한 파우더가 피부 빛을 채워 품위 있는 광채 피부를 연출해 주는 쿠션이다.

최대 72시간 동안 피부를 매끈하고 윤기 있게 커버해 주며, 기공이 있는 경량 파우더가 피부에서 올라오는 유분은 흡수해주고 산뜻한 사용감은 높여주어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부가 숨 쉬듯 편안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티르티르의 스테디 셀러로 불리는 물광 라인 또한 전 세계적 인기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중 ‘밀크 스킨 토너’는 토너 카테고리 1위, 전체 뷰티 카테고리 에 등극하며 연이어 화제를 모았다.

‘밀크 스킨 토너’는 24시간 촉촉한 우윳빛 보습을 선사하는 제품으로 어떤 피부 타입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피부에 깊은 보습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건강한 피부 장벽 케어에 도움을 주는 펩타이드, 판테놀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맑고 활력 있는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식물 유래 성분을 함유해 피부 보호 및 진정과 모공 수렴에 도움을 준다. /신원선 기자



롯데면세점 나우인명동 스누피 마켓 팝업스토어 전경. /롯데면세점

## 롯데면세점

‘스누피’ 팝업매장 진행

롯데면세점은 나우인명동에서 글로벌 인기 캐릭터 ‘스누피’의 팝업매장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롯데면세점 나우인명동에서 열린 이번 ‘스누피 마켓’ 팝업스토어는 오는 8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스누피’는 1950년 미국의 신문 만화인 ‘피너츠’에 등장한 비글 강아지 캐릭터이다. 주인공인 소년 ‘찰리브라운’, 노란색 철새 ‘우드스톡’ 등과 함께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면세점과 IP커머스 전문 브랜드인 ‘보프렌즈’와의 협업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글로벌 캐릭터 스누피를 활용한 명동지역 최초의 팝업스토어 의미가 크다. 롯데면세점은 나우인명동 전 구역을 ‘스누피 마켓’ 콘셉트로 꾸몄다. 매장 곳곳에 스누피와 피너츠 캐릭터들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담은 것은 물론, 포토존과 휴게공간 등을 마련해 체험요소를 강화했다. /신원선 기자



2024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 푸드테크,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2024.06.19(수)

14:00~17:00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행사개요

- ▶ 행사명 2024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 ▶ 주제 푸드테크,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 ▶ 일시 2024년 6월 19일(수) 14:00~17:00
- ▶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 후원 사전 등록시 무료(100명 선착순, 현장등록 11만원)
- ▶ 사전접수 2024 푸드이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IBK기업은행-핀베라, 중소기업 지원 MOU**

IBK기업은행은 지난 6일(현지시간) 헬싱키에서 핀란드 정책금융기관인 핀베라(Finnvera)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창환 IBK기업은행 경영전략그룹 부행장(오른쪽)과 유세 하라실타(Jussi Haarasilta) 핀베라 기업금융부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삼표그룹,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후원금 전달**

삼표그룹이 임직원 공감 후원 프로젝트인 'SPread the Love'를 통해 희귀질환 아동 후원금 1513만원을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전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왼쪽부터)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담당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 삼표그룹 블루허그 남윤식 수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표그룹



**코카-콜라, '원더플 캠페인' 체험존 운영**

한국 코카-콜라가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플 캠페인(이하 '원더플 캠페인')' 시즌5 오프라인 체험존 운영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오프라인 체험존은 파트너사인 이마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마트 및 트레이더스 매장 4곳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첫 운영지는 이마트 청계천점이다. /한국 코카-콜라



**제주항공, 필리핀서 24번째 의료봉사 펼쳐**

제주항공이 열린의사회와 함께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필리핀 세부 나가시티에서 24번째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제주항공 임직원과 열린의사회 소속 의료진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39명이 참여해 무료 진료와 약 처방, 보건 교육 등을 진행했다. /제주항공

**농식품부-농촌진흥청**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촌자원의 관광가치 발굴이란 주제로 국내 학부 및 대학원생(휴학생도 가능) 대상으로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청년세대(MZ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찾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농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제안' 또는 '사업화 모델' 중 1개 분야의 제안서를 작성해 오는 내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문풍지·꽃의 반항' 등 작시... 한국시 국제화 주도**

**김광림 시인 별세**

향년 95세... 한국시인협회장 발인 11일, 장지 서울 현충원



김광림 시인

"나이 예순이면/살 만큼은 살았다 아니다/살아야 할 만큼은 살았다 /이보다 덜 살면 요절이고/더 살면 덤이 된다/이제부터 나는 덤으로 산다(중략)"

1989년 회갑을 맞으며 "이제부터 덤으로 산다"고 말한 시인 김광림씨가 덤 인생 삼오해인 올해 9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고인은 1929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2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충남(忠男)이다. 원산공립중학을 거쳐 평양종합대 역사문학부 외국문학과에 입학했다.

1948년 12월 한탄강을 거쳐 단신으로 월남했다. 그해 안양에서 '청포도' 동인과 어울리다가 청록과 시인 박두진의 권유로 구상 시인을 만난 것이 인연이 돼 '문풍지'라는 시를 처음 발표했다.

경기 여주군 북내초등학교 교사로 있던 중 6·25전쟁을 만나 육군 소위로 참전한 고인은 1959년 첫 시집 '상심하는 접목'을 펴냈다. 1961년에는 김종삼, 김요섭 시인 등과 함께 문예지 '현대시'의 창간 동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한 고인은 문화공보부, KBS, 한국의환은행 등에 잠시 재직한 뒤 장안대 교수로 봉직하다 1996년 퇴직했다. 1992~1994년에는 제28대 한국시인협회장을 지냈다.

시인은 서구 모더니즘의 바탕에

서 이미지를 통한 명징한 시 세계를 추구한 시인으로 꼽힌다. 정지용, 김기림에서 시작해 김광섭, 박남수 등을 거치며 형성된 한국시의 주지주의적 흐름을 잇는 모더니스트 시인으로 평가된다.

1959년 '사상계'에 발표한 시 '꽃의 반항'은 전후(戰後)의 황폐함을 배경으로 꽃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시키며 도회적 서정을 담아낸 작품이다.

김광림은 화가 이중섭과의 인연이 깊다.

시인은 해방직후 1947년 원산에서 이중섭을 처음 만나 그가 작고한 1956년까지 인연을 맺었다. 장교 복무 시절에는 이중섭의 요청에 따라 외출을 나올 때마다 보급품 박스 속에 들어있던 양담배 은박지를 수집해 그림의 재료로 전해줬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중섭 화가는 1955년 서울 미도 파백화점과 대구 미공보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하지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실망과 충격으로 대구

에서 만난 고인에게 '내 그림은 다 가짜야.'라고 하면서 불태워 달라고 했다. 은박지 그림과 소품들을 보관했다가 이중섭 화가와 같이 머물고 있던 친구이자 소설가 최태응에게 모두 돌려줘 가짜로 은박지 그림을 살려냈다."(2011년 11월 18일 서울신문 인터뷰)

시인은 1980년대부터는 한국시의 국제화를 위해 힘쓰면서 한·중·일 시단 교류에도 앞장섰다. 1985년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한 고인은 1999년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 2001년 국가유공자증서 등을 받았다. 2009년에는 '허탈하고플 때'로 청마문학상을 수상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한국시인협회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으로는 아들 상수(바움커뮤니케이션 회장)·상일(조각가)·상호(대만과 기대 학장)씨와 딸 상미씨 등이 있다. 발인은 11일 오전, 장지는 서울 현충원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시몬스, 지역 자원순환 돕는다... "지속가능한 미래 동행"**

**이천시 자원순환 MOU 체결 폐기물 재순환 활동 등 추진**

시몬스가 경기 이천시와 순환경제사회를 위해 힘쓴다.

시몬스는 최근 이천시 북하천 일원에서 행사를 갖고 이천시와 순환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몬스는 이천을 대표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로, 이천시 모가면 일대에 생산시설 및 수면 연구 R&D센터 등을 갖춘 '시몬스 팩토리움'과 ESG 산실인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 등이 있다.

협약을 통해 시몬스와 이천시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관내 공공기관들과 협업을 폐기물 재순환



시몬스가 경기 이천시와 자원순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 참석자들이 이천 북하천에서 흥공을 던지고 있다. /시몬스

활동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체결 후 양측 임직원들과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은 중고물품을 기부하고, 쓰레기 줍기와 'EM(Effective Microorganisms) 흥공' 던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미래세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구축에 가까이 동참해 준 시몬스 침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의 재순환 및 순환경제 전환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몬스 침대는 이천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이웃으로서 다채로운 ESG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시몬스 테라스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및 일루미네이션 점등'과 '파머스마켓'을 진행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SKT "K-POP 호텔' 놀러오세요"**

**이프랜드에 커뮤니티 공간 마련**

SK텔레콤이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 K-POP 아이돌과 글로벌 팬이 만나는 새 커뮤니티인 'K-POP 호텔'을 10일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커뮤니티는 이프랜드 공간을 연결한 메타버스 속 가상 호텔이다. 호텔 모든 층을 조망할 수 있는 '인트로 화면', 1층부터 99층까지 각 아이들이 층별로 체크인하는 '아티스트 라운지', 멤버별 특색을 담은 '멤버룸' 등 3가지 공간으로 구성됐다.

휴화면은 1층부터 99층까지 체크인한 아이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팔로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층수는 아



SKT 모델이 'K-POP 호텔'을 소개하고 있다. /SKT

티스트가 직접 선택한 숫자로 지정된다.

K-POP 호텔 첫 손님은 99층에 체크인하는 아이돌 '에스파'와 2층에 체크인하는 이프랜드 걸그룹 '이프랜드스'다. '라이즈'와 '산다라박'이 각각 이달 말, 9월 순차적으로 체크인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스타벅스,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

**다회용컵 고객 별 추가 적립**

스타벅스가 5월에 이어 6월에도 개인 컵 이용에 대한 감사의 별을 제공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0일 개인 다회용 컵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별 1개를 추가로 제공하며, 다회용 컵이 용 활성화를 위한 '일(1)회용 컵 없는(0) 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라면, 10일 하루동안 적립된 에코별 1개 당 1개의 추가 별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추가 별은 6월 25일에 일괄 적립된다.

개인 컵을 쓰면 쓸수록 혜택은 더해져 만약 10일 하루 동안 개인 컵으

로 3잔의 음료를 구매한다면 에코별 3개와 추가 별 3개까지 총 6개의 별을 제공받게 되는 셈이다.

스타벅스는 2018년부터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매월 10일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을 전개하고, 개인 다회용 컵 사용에 동참해 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머그, 텀블러, 커피박 화분 키트, 음료 쿠폰 등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해왔다.

올해 5월부터는 보다 많은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운영하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와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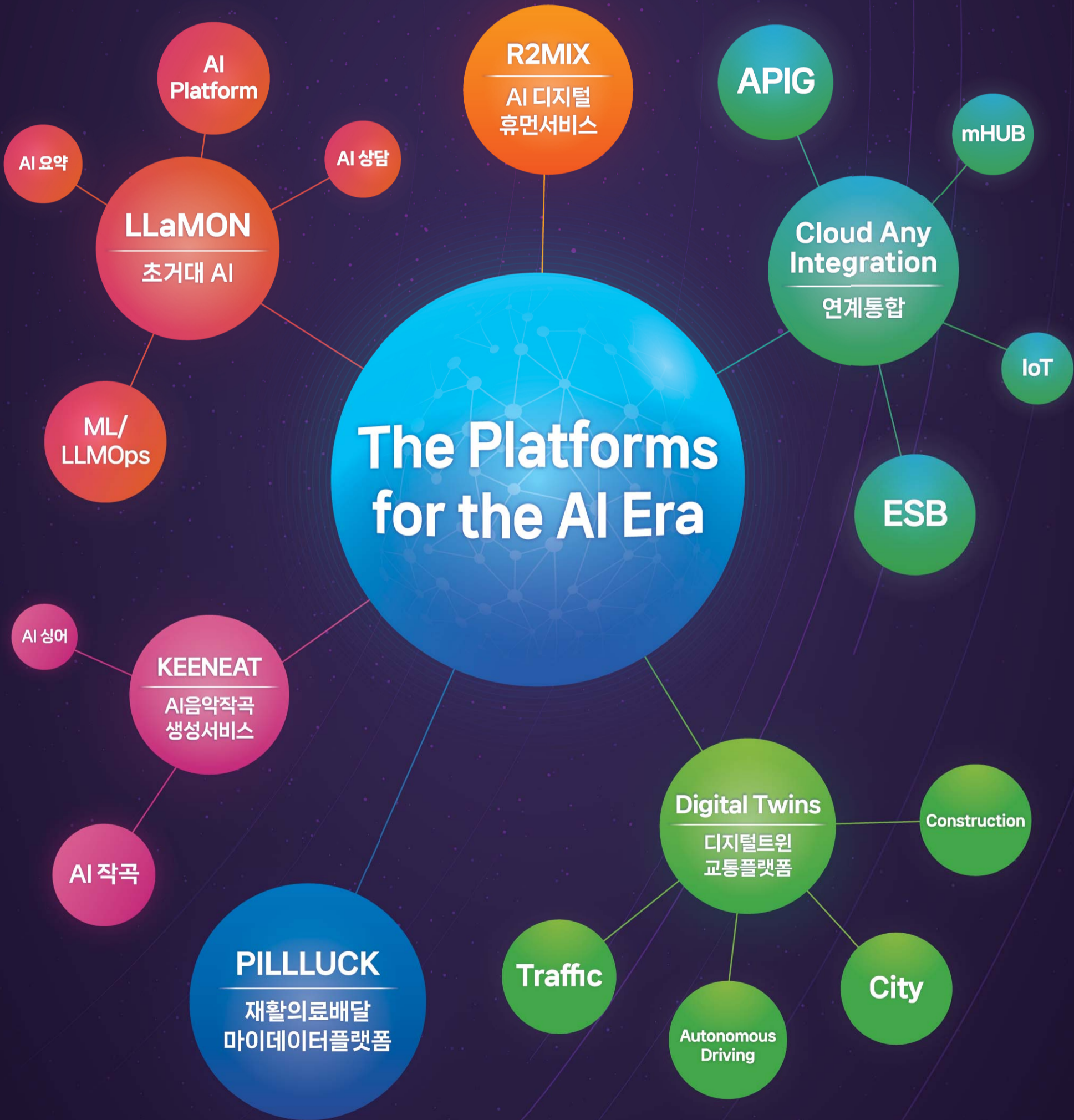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 콘텐츠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저작권접권’



**박 상 오 변호사**  
콘텐츠 법률 산책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저작권재산권, 저작권접권)’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인 ‘저작권접권(neighboring rights)’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작권접권’은 실연자(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등으로 표현하는 사람),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법에 따라 인정되는 저작권과 인접한 권리이다. 어떤 가요를 예로 들면, 작사·작곡가는 저작자에 해당하고 그 가요를 직접 부른 가수는 실연자, 해당 앨범을 제작한 사람은 음반제작자, 가요를 실연하는 장면을 방송한 방송사는 방송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직접적인 창작자(=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위 예시에서 ‘가요’)을 해석하거나 이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해 매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저작권법은 위 실연자 등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자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작권접권자인 ‘실연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실연자는 인격권으로서 저작권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갖는다(저작권법 제66조, 제67조). 그러므로 어떤 가요를 특정 가수가 부른 녹음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녹음본에 관해 가장자를 다른 가수로 표시하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가 되고, 편집등으로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된다.

또한 실연자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방송되는 실연 제외)’, ‘방송권’, ‘전송권’을 갖는다(저작권법 제69조 내지 제74조).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하는 방송사업자,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해 송신하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도 갖는다(저작권법 제75조, 제76조). 다만, 실연자에게는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것과

같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음반제작자의 경우 따로 인격권을 갖지는 않으나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그리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하는 방송사업자, 음반을 사용해 송신하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갖는다(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3조의2).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인격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송사업자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만을 갖는다(저작권법 제84조 내지 제85조의2).

이처럼 저작권접권의 경우에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콘텐츠 업계의 종사자로서는 먼저 저작권접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이러한 저작권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법적 자문 등을 받아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 토요타 품질조작 논란... 현대차그룹도 되새겨야



**기지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탈수록 가치를 알 수 있고 탈수록 탐나는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판매 1위인 토요타를 비롯해 일본 완성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다. 강력한 내구성과 뛰어난 품질로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차량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일본차는 하이브리드차(HEV) 분야에서도 오랜기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남다른 자부심도 있다.

그러나 토요타의 이같은 명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토요타의 아키오 회장이 지난 6월 3일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세계 소비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 점이다. 아키오 회장은 올해 초에도 엔진 성능 인증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 발각됐으며 지난 2010년에는 가속페달 결합에 따른 대규모 리콜 사태로 아키오 회장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토요타가 본사 차원에서 인증 조작을 저지른 만큼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명성을 쌓아온 만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는 1위 수성에 대한 조급함과 로 토요타가 침몰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는 “토요타 사태가 일본차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 “품질을 무기로 세

계를 이끈 일본차가 흔들리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기업들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선 안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바로 글로벌 3위로 급부상한 현대차그룹이다. 자동차 시장은 100여년을 이어온 내연기관에서 빠르게 친환경차로 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도 다양한 신기술을 앞다퉈 내놓으며 기술력 뽐내기에도 집중하고 있다.

친환경차 시장에서 더이상 팔로워가 아닌 마켓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대차그룹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신차 연구 개발과 출시 주기 등에서 ‘빨리빨리’가 느껴진다. 한순간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수 있다. 차량의 안전 문제는 속일수도 없고 속여서도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6월 10일 (음 5월 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것. 48년생 긴장하지 말고 타협과 양보로 대비. 60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무리. 72년생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을 실감. 84년생 공격을 자랑하면 오히려 비난이 따른다.



37년생 눈앞의 실속을 행기다 보면 이익을 놓친다. 49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대화에 주의. 61년생 가족이라도 돈 문제를 계산해보아야. 73년생 과격하게 남의 허물을 지적하지 마라. 85년생 조심성은 어느 사람에게나 불가결의 조건.



38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유익한 정보를 얻어 이익. 50년생 배우자의 고집으로 난감한 하루를 보낸다. 62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나가라. 74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 86년생 재능이 있었지만 주장이 강해 재능이 숨겨져 버린다.



39년생 닭피 깨뜨려의 거리가 잘 이루어진다. 51년생 운이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으니 기다려보라. 63년생 소금이 필요해도 너무 짜지 않게 조화를. 75년생 직장에서 아침부터 반가운 소식. 87년생 돈 자랑하다 쓰지 않으면 발목 잡힌다.



4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 52년생 모난 돌이 정 많은 법이니 오늘은 자중. 64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술술 풀린다. 76년생 비할 언덕이 절실할 필요하다. 88년생 발에 김을 매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다 움직이자.



41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을 해보자. 53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라. 65년생 오전부터 음주자 웬 말이던가. 77년생 다음의 비상을 위해서 면접시험을. 89년생 색은 나무로 아찌 조각 작품이 나오겠는가.



42년생 타인을 지나치게 비난하다가 위험에 직면. 54년생 합격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다. 66년생 도박성 유혹이 있는 날. 78년생 먼저 핀 꽃이 먼저 진다. 90년생 사람은 바탕이 있어야 하니 승진 공부는 계속해야만.



43년생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격언. 55년생 인생은 마라톤이니 힘내보자. 67년생 결단력으로 자신 있게 도전. 79년생 크기(虎) 혼란하다 마음 수양. 91년생 성의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에게 적선은 깨진 독에 물 붓기.



44년생 스스로 돕는 정신이 있을 때 남도 돕는다. 56년생 태만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방법은 없다. 68년생 손품에 뚫든 배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80년생 꾸밈없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던가. 92년생 교육이란 정성과 노력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



45년생 말은 하기 쉬우나 주워 담을 수 없다. 57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까 기다려라. 69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81년생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이치. 93년생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46년생 처음엔 서운한듯하여도 끝없는 부모 마음을 자식이 알까. 58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을. 70년생 친구의 가정사에 휘말리지 마라. 82년생 누구나 장단점은 있으니 본인 장점을 찾아서 연마하도록. 94년생 화목을 우선으로 생각.



47년생 내리막길은 가장 생활 때 조짐이 나타나니 자식을 살펴볼 것. 59년생 도중에 지지치 말고 이치를 다시 터득해보자. 71년생 오후 음주는 금물. 83년생 가정불화는 참는 것이 최선의 길. 95년생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 했으니.



## 김상회의 四季 풍경소리의 단팔죽

회의하거나 공부를 할 때 맥거리가 빠질 수 없다. 필자의 사찰 월광사 풍경소리 6월 법회 때는 미역국을 끓여서 점심 공양을 하고 디저트로 단팔죽을 시식했다. 어릴 적에 엄마가 팔을 삶고 있는 모습을 보면 코끝에서 포근하고 맛있는 냄새가 감돌았다. 팔죽을 만들려면 넉넉히 물을 붓고 팔알이 무르도록 삶는다. 다 삶으면 체로 걸러서 껍질을 제거하고 다음엔 쌀을 끓이고 팔알을 넣어 다시 끓인다. 이때쯤 새알심을 같이 넣고 끓이면서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단팔죽은 쌀을 넣지 않지만 손이 많이 간다.

가마솥에 삶고 끓여야 하는 예전보다 만들기는 쉬워졌지만 정성으로 맛이 일품이다. 팔죽은 동지에 특별히 만들어 먹는 음식으로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고려시대 기록에 동지팔죽을 먹었다는 내용이 있다. 그 기록은 조선시대 문헌에도 남아있고 조리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적혀있다. 역사가 오랜 팔죽은 여름에도 핫한 음식이다. 젊은 세대가 즐겨 찾으면서 디저트 카페에 가면 팔빙수 단팔죽이 인기상품이다. 카페문화가 번지면서 디저트도 하나의 문화가 됐다. 특히 젊은 세대는 디저트를 먹으며 피곤한 오후의 여유를 즐긴다.

단팔죽을 한 숟가락 떠놓으면 부드러움이 입안을 가득 채우면서 살짝 씹으면 이번엔 달콤한 맛이 미각을 만족시켜준다. 거기에서 비타민 단백질 섬유질 칼륨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도 가득하다. 무엇보다 빠지지 않으니 오늘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다면 단팔죽을 찾아 그곳 가게 한 그릇을 먹어보자. 입안의 행복함으로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능률이 높아질 것이다. 머리를 쓰고 검토하는 회의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며 기분은 산뜻하게 살아나니 아이디어가 확 떠오를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1		6	
		2	7	3	
9				7	
3			8		5
		5			1
	4	5			
		8	9	2	
		2		1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8	8	1	9	7	2	6	9
9	7	9	2	6	2	8	8	6
6	2	1	8	9	8	9	7	2
1	6	7	8	2	9	9	2	8
9	9	2	7	8	6	1	2	8
8	8	2	2	1	9	7	9	6
2	2	6	9	7	8	6	1	9
8	1	8	9	2	2	6	9	7
7	9	9	6	8	1	2	8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4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4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중소기업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산업 고도화로 기업가치 올려야”

서울연구원, 서울 350개 중소기업 89.7% DX기술도입 ‘긍정적’ 우선도입 업무 84.3% ‘고객관리’

서울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의 성장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행한 ‘4차 산업혁명기 서울경제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 정책리포트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 추세에 발맞춘 적극적인 대응이 중대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서울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DX)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이 이 소재 3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89.7%가 DX 기술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DX)은 기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객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DX는 단순히 회사내 기술 도입의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영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38.9%는 ‘특정 업무에 한해 DX 기술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응답했고, 37.4%는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선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디지털 전환 기술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업무 분야는 고객관리(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가 84.3%로 1위를 차지했다. 시장 조사·분석(70.9%), 재무·회계·인사관리(51.7%), 판매·마케팅 혁신(37.4%), 생산 공정 효율화(19.1%), 연구 및 제품 개발(12.6%), 회사 내 자원 관리(11.4%), 공급망 관리(6.3%)가 그다음이었다.

DX 기술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정보 수집 역량 증대(32.8%), 회사 자원의 체계적 관리(29.7%), 신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기업가치 창출(29.1%) 순

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서울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의 성장 고도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책 추진 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기업 내 디지털 전환의 인식 확산 및 실행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모색해야 한다”며 “또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여건을 감안해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전환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술공급 주체인 디지털 기술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지속·고도화하기 위해 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개방형 공공 빅데이터 공유 및 활용 촉진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의 출현과 성장을 돕는 산업 디지털 전환 펀드를 조성, DX 도입과 비즈니스 사업화, 스타트업 성장 지원 자금 등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올림픽대로 상부 생태 댚개공원 최종 선정안 조감도.

/서울시

## 올림픽대로 위 댚개공원, 생태공원 조성

1만㎡ 규모로 정원·오솔길 등 갖춰

2027년 완공 예정인 반포동 한강변 올림픽대로 상부 1만㎡ 규모의 서울 첫 댚개공원이 정원과 숲놀이터, 오솔길과 산책로를 갖춘 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이 댚개공원은 신반포로~반포한강지구를 걸어서 지나다닐 수 있는 보행로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공중정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국제설계공모 1등작으로 이소진 건축가(건축사무소 리움)와 신혜원 건축가(호주 모나쉬대학 교

수), 조경회사 스튜디오 별칸의 루카스 슈와인구루버의 공동 응모안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소진 건축가는 운동주문학관으로 지난 2014년 서울시 건축 대상을 받았고, 신혜원 건축가는 2020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총감독을 맡은 경력이 있다.

공원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조성된다. 단지위 인근 소공원을 포함한 약 4만3362㎡ 크기로, 댚개공원(1만㎡)과 전시장(3300㎡) 등이 들어선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스페인 사우스 서밋과 업무협약

9월 25일 스타트업 박람회 개최

오는 9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관련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스페인 사우스 서밋(south summit)과 손잡고 박람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현지시간 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사우스 서밋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25일부터 3일간 광고(수원컨벤션센터)와 판교(스타트업캠퍼스 등)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은 5일부터 7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사우스

서밋 마드리드 2024’에 참석했다.

사우스 서밋은 2012년 스페인에서 시작해 10여년간 누적 투자액이 약 13조원, 7개 이상 유니콘기업(기업가치 약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배출을 이끈 남부 유럽 지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이다. 소프트뱅크, 구글 등이 투자자, 협력사로 함께하며 지난해 열린 ‘사우스 서밋 마드리드 2023’에는 3,500여개의 스타트업, 2,000여개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도는 사우스 서밋의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경기도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준비에 활용할 계획으로 3,000여개 스타트업과 투자자 1,000명 이상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 “내년 대입 ‘무전공 유형1’ 이과가 더 유리”

4년제 대학 합격선 비교 주요대학 73곳 ‘무전공’ 30% 선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전공 구분 없이 입학하는 ‘무전공’으로 주요 대학 73곳에서 10명에 3명꼴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가운데,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회의 회 대입포털 ‘어디가’에서 공개한 전국 4년제 대학 합격선을 비교한 결과,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내신 합격선이 서울권 자연계열은 2.15등급지만, 인문계열은 2.34등급에 그쳤다. 학생부종합전형도 인문 3.00등급, 자연 2.64등급으로 모두 자연계가 높게 형성됐다.

앞선 2022학년도 입시에서도 수시 내신 합격선은 서울권 인문 2.45등급, 자연 2.22등급으로 자연계가 내신 합격선이 높았다. 경인권 대학도 인문계열 3.79등급, 자연계열 3.49등급으로 자연계 합격선이 높고, 지방권도 인문계열 4.74등급, 자연계열 4.55등급으로 마찬가지로였다.

2024학년도 입시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어디가’에는 2024학년도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열린 ‘6월 모평 직후 종로학원 입시예상 및 합격선 전망 설명회’에서 학부모가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학교 내신 합격선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4학년도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신 합격선을 살펴보면 교과전형의 경우 ▲경희대 인문 1.77등급, 자연 1.64등급 ▲고려대 인문 1.50등급, 자연 1.43등급 ▲연세대 인문 1.69등급, 자연 1.56등급 ▲성균관대 인문 1.76등급, 자연 1.62등급 ▲한양대 인문 1.47등급, 자연 1.30등급으로 모두 자연계가 우세했다.

무전공 선발은 유형1과 유형2로 구분해 이뤄진다. 유형1은 의대·사범대를 제외한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발유형이다. 유형2는 계열·단과대로 입학한 뒤 해당 분야 내에서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문과·이과가 구분된 셈이다. 2025학년도 무전공 중점 추진대상 73개 대학(수도권 51곳, 국립대 22곳)의 무전공 모집인원은 총 3만7935명이다. 73개 대학의 2024학년도 무전공 선발 비율은 6.6%(9925명)였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4배 이상 증가해 신입생의 30%가량을 차지한다.

과거 문과에 비해 이과 학생들의 합격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문과·이과 구분 없이 선발하는 유형1의 경우, 이과생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내신 성적상으로 현재 고득점 학생들이 이과생들이 문과생보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과생과 문과생이 경쟁을 벌이는 유형1의 경우,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지원 시 유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라며 “신입생 입학 결과에서도 유형1은 대부분 주요 대학에서 이과 합격선이 문과보다 수시에서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대표는 “정시 선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 lhj@



▲모디 인도 총리, 3연임 성공...취임식 개최 /사진 뉴스시스  
▲IRA에 배터리업계, 美점유율 1위...“트럼프 당선시 투자유치 우려”

▲러 화물선, 4월 北 나진항 기항...무기·탄약 운반 가능성 무거  
▲버진갤럭틱, 관광객 4명 태우고 7번째 상업용 우주비행 완료



▲덴마크 총리, 채찍 공격 받아...유럽 정치인 겨냥 공격 ↑ /사진 뉴스시스  
▲日 히타치, 2027년까지 5만명 AI 인재 육성...신규서비스 투입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0 | 해질 / 19:53

6월 10일 (월)  
음력 : 5월 5일

수도권 날씨  
19~3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6/29, 동두천 17/29, 가평 16/30, 파주 17/28, 서울 19/30, 양평 17/30, 인천 18/26, 수원 19/29, 용인 19/29, 평택 17/3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식품업계  
“저속노화 식단으로  
건강 지켜요”  
L1



디지털마케팅 서밋  
“숏폼 마케팅  
구매 가능성 높아”  
L2



# “일상에 다양성 더해... 깊이 있는 크리에이터로 ‘한발 더’”



새벽을 여는 사람들

## 유튜브 크리에이터 에바(EVA)

거대 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는 놀라운 성장력으로 우리 일상에 자리잡았다. 스마트폰 등 인터넷의 빠른 발전에 힘 입어 동영상 시장을 주도했고, 이제는 다수의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올해 9년차가 된 70만 유튜버 '에바(EVA)'(사진)는 이러한 유튜브 시장 성장기를 함께해 왔다.

### ◆ '대학생 유튜버'가 '올 라운더'로

유튜버 에바의 시작은 2015년 대학생 시절과 맞닿는다. 올해 29살인 그의 본명은 김혜원으로 세종대학교 영화연출학과를 졸업했다. 취업 준비에 한창이던 대학 시절 타 크리에이터가 소개했던 '레페리 크리에이터' 신청 안내를 보고 흥미를 갖게 된 에바는 대학생인 자신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에바는 레오제이, 김습습 등과 함께 '레페리 뷰티 유튜버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1기' 출신이다.

그는 “처음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과 동영상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이 시작했다”면서도 “일상과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영상으로 항상 남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잘 나로 스쳐갈 수 있었던 순간들에 대해 다시금 회상할 수 있고, 순간마다 했던 다짐과 추억들을 돌아보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튜브는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인 만큼 타인이 보는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학생 브이로그, 대학생 착장 등 대학생 관련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시청자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에바는 어느새 9년차 유튜버가 됐다.

9년 동안 에바는 유튜브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대학생과 직장인을 겸하는 김혜원의 삶에서도 유튜브를 지키면서 말이다. 사실 세 가지를 모두 병행했을 때는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대학생, 직장인, 유튜버를 모두 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서 활용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뒤로 두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에 있어서도 생각할 여유가 많을수록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부연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관심사가 건강으로



대학생때부터 시작한 9년차 유튜버  
자연스러운 모습 담긴 영상에 매력  
대학생·직장인·유튜버 병행하기도

특정 주제보다 다양한 콘텐츠 시도  
꾸준함 위해 ‘지치지 않는 선’ 고민  
진심 쏟아주는 구독자에 늘 감사해

많이 변화했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운동을 시작했고, 운동 관련 브이로그 등을 올리면서 새로운 영상도 담을 수 있게 됐다.

고난의 순간이었지만 에바가 유튜버의 길을 확신했던 것도 이때다. “다른 일을 경험해 보면서 내가 단순히 흥미롭고 재밌기만 해서 유튜브를 했던 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았다”며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형성됐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현재 에바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이 사랑받았던 대학생 콘텐츠를 벗어나 특정 주제를 갖게 다루는 토크 영상이나 뷰티·패션 영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그는 “현재의 돈을 유지하면서 깊이 있는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다루고 싶

다”고 눈을 빛냈다.

이어 “예전에는 어떤 분야의 크리에이터 인가에 대한 분류를 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분류가 사실상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느껴진다”면서 “이제는 더 폭 넓게 콘텐츠를 발행하면서 누군가에게는 뷰티 유튜버, 누군가에게는 일상 유튜버가 되는 등 다양하게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 ◆ 9년차 유튜버... ‘자연스러움’이 우선

에바는 영상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유튜버가 고민하는 ‘온앤오프(일상과 일에 대한 분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는 “‘온앤오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일상을 담은 사람인 만큼 영상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녹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경계를 뚜렷하게 나누려고 하다보면 영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온앤오프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 스트레스는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자연스러운 영상물에 대한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실제로 영상 안과 밖의 모습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그다.

촬영을 하는 날에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담고, 촬영이 아예 없는 날에는 편집과 개인적인 일정을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최

근 들어서는 변화하는 유튜브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롱폼(긴 영상)’보다는 ‘숏폼(짧은 영상)’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짧은 길이의 영상을 만드는 것에도 도전하고 있다. 유튜브와 에바의 성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 ‘일희일비’하지 않는 유튜버 되기

에바는 어렵게 느껴지던 부분에 대해 성과를 얻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그 안에 유튜버가 포함돼 있다. 특히 시청자 개인의 삶에서 본인의 영상물로 인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런만큼 시청자들은 에바에게 상당히 소중한 존재다. 에바는 “구독자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늘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유튜브 채널을 처음 만들 때부터 나의 콘텐츠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바는 구독자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치지 않는 선’을 늘 고민한다. 그는 “유튜브를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억지로 좋은 모습, 높은 퀄리티만을 추구하다보면 오히려 지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선을 지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유튜브는 수치적인 성과가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다. 그래서 늘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에바는 “정성 들여 만든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오지 않으면 텐션이 다 운될 수도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도달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연연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당장 큰 성과가 없다고 해서 다음 콘텐츠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버들이 흔히 겪게 되는 악플에 대해서도 동요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그는 “악플을 그렇게 답아 두는 편도 아니고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악플 자체도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본다”며 “도덕적·윤리적으로 잘못해서 받은 비판이 아니라면 좋은 사인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바는 “모든 과정들이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끼게 된다”며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인데 콘텐츠를 보고 저를 좋아해 주시고, 진심을 담아 주시는 정성이 너무나 감동적이다”라고 힘을 줬다. 그는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에너지를 소모해 진심을 쏟아 주시는 게 늘 감사하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유튜브 채널 에바(EVA)에 게시된 콘텐츠. /유튜버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한국축구, 클린스만 후임 찾기 돌입... 11일 이후 후보군 추려  
▲한국 남자하키, 말레이시아 꺾고 네이션스컵 5·6위전 진출 /사진 뉴시스

▲방탄소년단 진, 오는 12일 전역...복귀 신호탄  
▲뉴진스 ‘하우스 스위트’ 108만장 판매... 4연속 밀리언셀러 등극



▲김하성, 이틀 연속 홈런 가동...올 시즌 처음 /사진 뉴시스  
▲시비웅테크, 프랑스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3년 연속 정상